

N

Y

P

I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김정숙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 책임연구원 : 김정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홍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 ‘한국청소년연구원’으로 설립된 후, ‘한국청소년개발원’을 거쳐 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변모하는 동안 정부, 학계, 현장과 지속적으로 연계하는 동시에 관련 수요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청소년 관련 연구 및 활동들을 주도해 왔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빈곤·위기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구조의 다변화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청소년정책 환경의 주요한 변화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학업경쟁과 사회적 유해환경의 증가는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불균형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접어든 한국 사회의 후기청소년들은 실업 및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청소년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현장 적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적시에 제안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청소년정책연구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상술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5년간 수행했던 연구과제를 분석함으로써 그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설립된 후 지금까지 청소년정책사를 검토한 연구는 수행된 적이 있으나 본 연구원이 수행했던 다양한 연구과제를 분석하고 성과를 정리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지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청소년정책연구 발전 방안이 향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도약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드림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5년 간 수행했던 연구과제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연구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과제에 대한 동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1989~2013년까지 수행된 연구과제를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주요 동향을 파악하였다. 둘째, 연구과제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과제를 몇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연구자별로 수행한 과제수와 연구주제를 살펴보고, 연구과제에서 제안한 정책 제언들을 분석하였다.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정책연구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내용 분석을 위해, 연구과제에 대한 양적분석과 내용분석 및 전문가 자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연구과제에 대한 동향 분석 결과, 내부과제와 외부과제는 7:3의 비율로 수행되었으며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과제가 다수를 차지한 반면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과제는 매우 적었다. 또한 일반청소년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약 66%였으며, 전기청소년 집단에 비해 후기청소년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역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과제와 외부과제로 구분하여 동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제 성격에 따라 연구과제의 수와 연구방법, 조사대상에서 차이가 있었다. 연구주제별 동향 분석 결과에서도 주제별로 수행된 연구과제의 수, 수탁발주처, 연구방법과 조사대상에서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과제에 대한 내용 분석에서는 연구과제를 5개 주제로 분류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연구자별 과제수와 연구주제, 정책 제언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연구자별 평균 전체 과제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평균 4.6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자별 연구주제는 비교적 유사한 연구주제부터 매우 다양한 연구주제까지 다소 편차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향 분석 및 내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과제의 성과 및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상술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정책연구 발전 방안을 연구과제의 발굴, 연구인력의 활용, 정책개발의 전문성 측면에서 제안하고 각 방안별로 2~3가지 세부 과제를 제안하였다.

핵심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내용 분석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989년~2013년까지 수행했던 연구과제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연구과제에 대한 동향 분석과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소년정책연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음.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 동향 분석: 연구과제에 대한 동향 분석은 전체 연구과제, 연구유형(내부과제 vs. 외부과제), 연구주제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 연구과제 내용 분석: 연구과제의 방대함으로 인해, 연구과제에 대한 내용 분석은 2003년부터 2013년에 발간된 연구보고서에 한정하였으며 5가지 대주제로 분류하여 실시하였음.
- 청소년정책연구 발전 방안 모색: 연구과제에 대한 동향 분석 및 내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연구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음.

2) 연구방법

- 양적 분석: 25년간 수행했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전체 연구과제, 연구과제 유형(내부 vs. 외부과제), 연구주제로 나누어 동향 분석을 실시하였음.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내용은 연구과제의 수와 유형, 연구참여자(전체연구자, 내부연구자 vs. 외부연구자 수), 연구방법(양적, 질적, 통합, 기타 방법 등), 조사대상(청소년, 성인, 통합집단 등) 및 조사대상 내 집단 등임.

- 내용 분석: 2003~2013년에 수행되었던 연구과제를 5개의 연구주제로 구분하여 청소년정책의 기본 흐름과 연계하여 파악하고, 연구과제의 성과 및 향후 과제를 도출함.
- 전문가 자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한편으로 연구 초기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연구분석틀을 수립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 향후 청소년정책연구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조사를 실시하였음.

3. 주요결과

1) 연구과제 동향 분석

- 전체 연구과제를 5년 단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2009~2013년 기간 동안 수행된 연구과제가 전체 과제 중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내부과제와 외부과제는 7:3의 비율로 수행되었음. 외부과제의 발주처는 청소년정책 전담부서가 53.5%로 가장 많았음. 전체 연구참여자 2명과 3명이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구과제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연구방법은 양적연구(39.4%)인 반면, 질적연구(7.4%)의 활용 비율은 매우 낮았음. 전체 연구과제 중 절반 이상은 청소년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청소년 집단 중에서도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약 66%를 차지했으며, 청소년의 연령 집단은 전기청소년 집단이 약 55%를 차지한 반면 후기청소년 집단은 3.7%에 불과하였음.
- 내부과제와 외부과제를 나누어 동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부과제는 전체 연구참여자가 2명과 3명이 각각 25%로 유사한 반면, 외부과제는 3명이 참여한 연구과제가 약 3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내부과제에서는 주된 연구방법이 양적연구인 반면, 외부과제에서는 기관 평가나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해당하는 '기타' 방법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음. 내부과제의 조사대상은 약 63%가 청소년인 반면, 외부과제의 주된 조사대상은 청소년과 성인집단을 통합한 경우로 약 40%를 차지하였음. 내부, 외부과제 모두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내부과제에서는 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약 56%를 차지한 반면, 외부과제에서는 전기청소년만을 조사한 연구와 전기+후기청소년을 통합한 연구가 각각 약 48%로 거의 유사하게 수행되었음.
- 연구주제별 동향 분석 결과, 보호 및 복지(24.8%),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23.4%),

정책기반 및 인프라(20.5%)의 순서로 연구과제가 많이 수행된 반면 권리, 참여 및 시민성(13.0%)에 관한 연구과제가 가장 적었음. 활동 및 역량 주제는 수탁과제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나머지 4개 주제는 모두 기본과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기반 및 인프라의 경우는 기본과제(44.2%)뿐만 아니라 수탁과제(37.5%)의 비율도 높았음. 연구주제별 주된 수탁과제 발주처는 청소년정책 전담부서였으나, 2순위 발주처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었음. 정책기반 및 인프라의 경우는 연구참여자 수가 2~4명인 경우가 전체 과제의 약 68%를 차지하였으나, 나머지 4개 주제에서는 2~3명의 연구참여자에 의해 연구가 수행된 경우가 다수였음. 연구주제별로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과제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정책기반 및 인프라의 경우는 기타 방법을 적용한 과제 비율이 양적연구방법을 적용한 과제 비율과 유사하였음. 조사대상에 있어서도 나머지 4개 주제는 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수행된 과제가 가장 많은 반면, 정책기반 및 인프라에서는 청소년과 성인 집단을 각각 조사대상으로 수행된 과제가 약 42%로 유사하였음. 연구주제별로 일반청소년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삼은 과제가 가장 많았으나, 보호 및 복지 주제에서는 위기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약 25% 수행되었음. 모든 주제에서 전기청소년 집단만을 다루거나, 전기+후기청소년을 통합하여 다룬 연구가 각 연구주제별 과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2) 연구과제 내용 분석

○ 연구주제별 내용 분석

-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와 생활, 권리, 참여 및 시민성, 활동 및 역량, 보호 및 복지, 정책기반 및 인프라 주제별로 연구과제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함.

○ 연구자별 과제수와 연구주제 분석

- 연구자별 평균 전체 과제 수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개별 연구자들이 수행했던 연구과제의 주제가 연구자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즉, 일부 연구자는 비교적 유사한 연구주제를 다루어 온 반면 다른 일부 연구자들은 매년 각기 다른 연구주제를 다루었음.

○ 정책 제언에 대한 분석

- 연구과제가 제안하고 있는 정책 제언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보고서가 제안하는 정책들이 일종의 패키지화된 형태를 띠고 있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향후 연구과제별로 특수성과 시의성이 반영된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

3) 연구과제의 성과 및 향후 과제

- 지난 25년간 수행된 연구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진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향후 과제로 연구과제 발굴의 체계화, 연구인력의 전문성과 현장 전문가의 참여 제고, 정책의 현장 적용가능성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4. 청소년정책연구 발전 방안

1) 연구과제의 발굴 측면

-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기존 연구과제에 대한 지도그리기(mapping) 작업이 요구되고 실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정기적 정책협의회 개최가 필요하며, 연구과제 분류 기준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을 제안함.

2) 연구인력의 활용 측면

- 연구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자별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구영역별로 외부 전문가 풀(pool)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3) 정책개발의 전문성 측면

- 정책개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청소년정책학의 토대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적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상시적인 정책 평가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5
1) 연구내용	5
2) 연구방법	6
II. 논의의 배경	9
1. 한국 청소년정책 동향 및 발전 과정	11
1) 한국 청소년정책의 발전 과정	11
2) 한국 청소년정책의 주요 내용	13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혁 및 발전 과정	20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 분석	23
1. 연구과제 동향 분석	25
1) 전체 연구과제 동향 분석	26
2) 연구유형별 동향 분석	40
3) 연구주제별 동향 분석	49
2. 연구과제 내용 분석	65
1) 연구주제별 내용 분석	65
2) 연구자별 과제수와 연구주제 분석	84
3) 정책 제언에 대한 분석	90
3. 연구과제의 성과 및 향후 과제	93

IV. 청소년정책연구 발전 방안	95
1. 연구과제의 발굴 측면	97
1) 기존 연구과제에 대한 지도그리기(mapping)	98
2) 실별 전문성 강화 및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99
3) 연구과제 분류 기준 개발 및 적용	100
2. 연구인력의 활용 측면	102
1) 연구자별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성 제고	102
2) 연구영역별 외부 전문가 풀(pool) 확보	103
3. 정책개발의 전문성 측면	104
1) 청소년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 아카이브 구축	104
2) 청소년정책학의 토대 마련	104
3)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105
V. 결론	107
참고문헌	113
Abstract	117

표 목 차

〈표 II-1〉 한국 청소년정책의 주요 내용	18
〈표 II-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요 연혁	21
〈표 III-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연도별 연구과제 수	25
〈표 III-2〉 연도별 전체 연구과제의 수	27
〈표 III-3〉 연구과제 유형에 따른 전체 연구과제 수	28
〈표 III-4〉 연도별 전체 연구과제의 유형 I	29
〈표 III-5〉 연도별 전체 연구과제의 유형 II	30
〈표 III-6〉 수탁과제 발주처(2001~2013년 연구에 한함)	31
〈표 III-7〉 연구참여자 수에 따른 전체 연구과제 수	32
〈표 III-8〉 연도별 전체 연구과제 당 평균 연구참여자 수 변화 추이	33
〈표 III-9〉 연구과제 참여 외부연구자의 소속	34
〈표 III-10〉 연구방법에 따른 전체 연구과제 수	35
〈표 III-11〉 연도별 전체 연구과제의 연구방법 변화 추이	36
〈표 III-12〉 조사대상 별 연구과제 수	37
〈표 III-13〉 전체 연구과제의 조사대상 청소년 집단 및 성인 집단	38
〈표 III-14〉 전체 연구과제의 조사대상 청소년 연령 집단	39
〈표 III-15〉 연도별 연구유형 과제의 수	41
〈표 III-16〉 연구참여자 수에 따른 연구유형별 과제 수	42
〈표 III-17〉 연도별 연구유형에 따른 평균 연구참여자 수 변화 추이	43
〈표 III-18〉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유형별 과제 수	44
〈표 III-19〉 연도별 연구유형에 따른 연구방법 변화 추이	45
〈표 III-20〉 조사대상별 연구유형 과제 수	46
〈표 III-21〉 연구유형별 조사대상 청소년 집단 및 성인 집단	47
〈표 III-22〉 연구유형별 조사대상 청소년 연령 집단	48

〈표 III-23〉 연구과제의 주제별 분류	49
〈표 III-24〉 연구주제에 따른 과제 수	50
〈표 III-25〉 연도별 연구주제 변화 추이	51
〈표 III-26〉 연구주제별 연구과제 유형	53
〈표 III-27〉 연구유형별 연구주제 1~5순위	54
〈표 III-28〉 연구주제별 수탁과제 발주처	54
〈표 III-29〉 연구주제별 연구참여자 수	56
〈표 III-30〉 연구주제별 연구과제 당 평균 내부연구자 수 vs. 외부연구자 수	57
〈표 III-31〉 연구주제별 연구방법	58
〈표 III-32〉 연구주제별 조사대상	59
〈표 III-33〉 연구주제별 조사대상 성인 집단	60
〈표 III-34〉 연구주제별 조사대상 청소년 집단	60
〈표 III-35〉 연구주제별 조사대상 청소년 연령 집단	63
〈표 III-36〉 내부연구자별 평균 전체 과제수	85
〈표 III-37〉 내부연구자별 참여 연구과제명	86
〈표 III-38〉 연도별 연구과제명	88
〈표 III-39〉 최빈 외부연구자 참여 연구과제명	88
〈표 III-40〉 정책 제언의 내용	90
〈표 III-41〉 정책 제언의 수와 종류	91
〈표 III-42〉 정책 제언 내용 분석 사례	91
〈표 IV-1〉 연구과제 분류를 위한 체크 리스트	101

그림 목 차

【그림 Ⅲ-1】 연도별 전체 연구과제 수 변화 추이	27
【그림 Ⅲ-2】 전체 연구과제의 유형 분포	28
【그림 Ⅲ-3】 연도별 전체 연구과제의 유형 변화 추이 I	29
【그림 Ⅲ-4】 연도별 전체 연구과제의 유형 변화 추이 II	30
【그림 Ⅲ-5】 수탁과제 발주처	31
【그림 Ⅲ-6】 연구참여자 수에 따른 전체 연구과제 비율	32
【그림 Ⅲ-7】 연도별 전체 연구과제 당 평균 연구참여자 수 변화 추이	33
【그림 Ⅲ-8】 연구방법에 따른 전체 연구과제 비율	35
【그림 Ⅲ-9】 연도별 전체 연구과제의 연구방법 변화 추이	36
【그림 Ⅲ-10】 조사대상별 전체 연구과제 비율	37
【그림 Ⅲ-11】 전체 연구과제의 조사대상 청소년 집단 비율	38
【그림 Ⅲ-12】 전체 연구과제의 조사대상 성인 집단 비율	39
【그림 Ⅲ-13】 전체 연구과제의 조사대상 청소년 연령 집단	40
【그림 Ⅲ-14】 연도별 연구유형 과제 수의 변화 추이	41
【그림 Ⅲ-15】 연구참여자 수에 따른 연구유형별 과제 비율	42
【그림 Ⅲ-16】 연도별 연구유형에 따른 평균 연구참여자 수 변화 추이	43
【그림 Ⅲ-17】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유형별 과제 비율	44
【그림 Ⅲ-18】 연도별 연구유형에 따른 연구방법 변화 추이	45
【그림 Ⅲ-19】 조사대상별 연구유형 과제 비율	46
【그림 Ⅲ-20】 연구유형별 조사대상 청소년 집단 비율	47
【그림 Ⅲ-21】 연구유형별 조사대상 성인 집단 비율	48
【그림 Ⅲ-22】 연구유형별 조사대상 청소년 연령 집단	49
【그림 Ⅲ-23】 연구주제별 연구과제 비율	51
【그림 Ⅲ-24】 연도별 연구주제 변화 추이	52
【그림 Ⅲ-25】 연구주제별 연구과제 유형	53

【그림 Ⅲ-26】 연구주제별 수탁과제 발주처	55
【그림 Ⅲ-27】 연구주제별 연구참여자 수	56
【그림 Ⅲ-28】 연구주제별 연구과제 당 평균 내부연구자 수 vs. 외부연구자 수 ...	57
【그림 Ⅲ-29】 연구주제별 연구방법	58
【그림 Ⅲ-30】 연구주제별 조사대상	59
【그림 Ⅲ-31】 연구주제별 조사대상 성인 집단	61
【그림 Ⅲ-33】 연구주제별 조사대상 청소년 연령 집단	64
【그림 Ⅲ-34】 연구자별 평균 전체 과제 수 변화 추이	85
【그림 Ⅳ-1】 기존 연구과제에 대한 지도그리기 예	99
【그림 Ⅳ-2】 청소년정책연구 발전 방안	106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 | 장 서 |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 ‘한국청소년연구원’으로 설립된 후, ‘한국청소년개발원’을 거쳐 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변모하는 동안 청소년 관련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통해 국가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본 연구원의 설립 전후로 청소년육성법(1987년)과 청소년기본법(1991년)이 제정되었으며 그 후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법령들이 체계화되었고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었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원은 정부, 학계, 현장과 지속적으로 연계하는 동시에 관련 수요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청소년 관련 연구 및 활동들을 주도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대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빈곤·위기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구조가 다변화되고, 다른 한편으로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의 유입으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미디어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지나친 학업경쟁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이 감소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생각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며, 사회적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취약성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접어든 한국 사회의 후기청소년들은 실업 및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서 정책 대상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청소년 정책 수립 및 대책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술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청소년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현장 적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적시에 제안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그간 수행되었던 연구과제를 분석함으로써 그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그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청소년의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다. 특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일조해 왔고, 역대 정부의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안한 바 있으며,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를 조망하는 등 지금까지 청소년정책 및 관련 연구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에 비해 본 연구원에서 수행했던 다양한 연구과제의 주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성과를 정리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상술한 맥락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25년간 수행했던 연구과제의 성과를 정리하고 성찰하는 것은 향후 연구과제의 방향과 주제를 설정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 연구는 여타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 현대사의 국면에서 시대적 요구와 사회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청소년학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연구과제에 대한 분석 작업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관점을 통해 청소년 정책들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시계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작업은 한편으로 국가 정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강점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미래 연구중점사안을 예측하도록 하여 새로운 과제 발굴에 대한 함의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과제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과제의 성과 분석을 위해, 연구과제에 대한 동향 분석 및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소년정책연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정책학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정책과제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5년간 수행했던 연구과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1) 연구과제 동향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했던 25년간의 연구과제에 대한 시계열 동향을 분석한다. 이때, 연구과제에 대한 분석은 전체 연구과제, 연구유형(내부과제 vs. 외부과제)별, 연구주제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전체 연구과제에 대한 동향 분석은 1989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구과제를 5년 단위로 범주화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유형별 동향 분석은 내부과제와 외부과제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한편, 연구주제별 동향 분석은 연구과제 제목의 키워드에 따라 1차적으로 분류하고, 그것을 다시 중주제, 대주제로 분류한 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해당 절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 연구과제 내용 분석

연구과제에 대한 시계열적 동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과제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과제의 방대함으로 인해, 연구과제에 대한 내용 분석은 2003년부터 2013년에 발간된 연구보고서에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과제를 크게 5가지 연구주제로 나누어 그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자별 과제수와 연구주제, 그리고 정책제언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내용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그간 수행되었던 연구과제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3) 청소년정책연구 발전방안 모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5년간 수행했던 연구과제에 대한 시계열 동향 분석 및 내용 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해야 할 청소년정책연구의 과제를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과제의 발굴, 연구인력의 활용, 정책개발의 전문성 측면에서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연구방법

상술한 연구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5년간 수행했던 1,014건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적 분석을 위해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연구과제 목록을 정리하고, 그 중 인쇄본 형태 또는 파일 형태로 연구보고서가 존재하는 886건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시계열 동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계열 동향 분석은 전체 연구과제, 연구과제 유형(내부 vs. 외부과제), 연구주제별¹⁾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연구과제의 수와 유형, 연구참여자(전체연구자, 내부연구자 vs. 외부연구자 수), 연구방법(양적, 질적, 통합, 기타 연구방법 등), 조사대상(청소년, 성인, 통합집단 등) 및 조사대상 내 집단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2) 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03~2013년에 수행되었던 연구과제에 한정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연구과제명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재분류한 결과 17개의 중주제, 5개의 대주제로 분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5개의 대주제에 포함된 연구과제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 분석에서는 연구주제별로 청소년정책의 기본 흐름과 연계하여 파악하고, 그간의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 및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1) 연구과제에 대한 내용 분석을 2003~2013년 과제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연구주제별 시계열 동향 분석 역시 2003~2013년 과제에 한정하여 이루어졌다.

(3) 전문가 자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연구 초기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연구분석틀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과제를 연구주제별로 분류하기 위해 2차례 전문가 자문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 전문가 자문조사에서 연구과제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34개의 소주제로 분류하였으며, 2차 전문가 자문에서는 1차 자문조사 결과 분류된 34개의 소주제를 다시 17개의 중주제로, 이것을 다시 5개의 대주제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청소년정책연구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수행해야 할 청소년정책 과제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총 10인의 전문가 자문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IV장 청소년정책연구 발전 방안에 반영하였다.

제 II 장

논의의 배경

1. 한국 청소년정책 동향 및 발전
과정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혁 및
발전 과정

제 II 장

논의의 배경

1. 한국 청소년정책 동향 및 발전 과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수의 연구과제는 한국 청소년정책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 청소년정책이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는가를 검토하는 일은 향후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모색에도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설립되었던 198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청소년정책의 주요 흐름을 살펴본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청소년정책은 1993년부터 5년 주기로 시행되었던 1차~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과 4차~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이 절에서는 한국 청소년정책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제1차 청소년육성계획에서부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1) 한국 청소년정책의 발전 과정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은 1987년에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국가 청소년정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전담 조직으로 체육부 내 청소년국이 설치되었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문제 청소년의 선도, 보호, 단속, 규제 위주의 청소년정책이 육성,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하게 된다.

1990년 5월에는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가정의 역할 및 학교의 올바른 지위, 사회 및 국가의 책임, 세계의 주역으로서의 청소년의 지위를 밝히는 “청소년헌장”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관련 내용들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그 후 1991년 6월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인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청소년정책을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교류 등 3가지 영역과 계획의 실행을 위한 법제 보장 및 재정

확충 등 5가지 영역을 정책 영역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이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청소년육성법 개정을 통해서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청소년육성법을 개정하여 “청소년기본법”을 마련하고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정책의 영역을 확정하고 이론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문화부와 체육부가 통합된 문화체육부가 발족하면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서 1993년~1997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1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1997년에는 자율화, 개방화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 및 약물 그리고 유해업소와 관련된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여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해 정부조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발족되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변경되면서 청소년 업무는 문화관광부가 청소년기본법 상의 육성 정책을 담당하였고, 청소년보호법 상의 보호 정책은 국무총리실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담당하는 이원체제로 변화하였다. 또한 이 해에는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한편, 2003년 12월 31일자로 청소년기본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일부 내용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5년에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실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통합되었으며, “한국청소년진흥센터”가 설립되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시행, 청소년 활동 및 복지, 보호에 관한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청소년정책은 아동정책과 통합되어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 추진되었고, 이 때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이 결실을 맺기 전에, 2010년 3월 청소년정책은 다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의 청소년정책관으로 이관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주관부처 이관으로 인해 청소년정책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김기현 · 장근영, 2012).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가 통합되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설립되었다.²⁾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 관련 국정과제로 ‘위기청소년

2) 상술한 내용은 윤철경 외(2008), 김광웅 외(2009)가 작성한 내용 중 해당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눈높이 보호 지원'과 '청소년 창의성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선정하였다.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에는 학교폭력 제로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인터넷 중독 극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학업중단 청소년,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체험활동 및 국제교류사업 확대를 통한 청소년의 창의성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13). 또한 2013년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014년 여성가족부는 핵심과제 중 하나로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로 설정하고 1)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개발 지원, 2)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강화, 3) 청소년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치유 지원, 4) 청소년정책 총괄 기능 강화를 세부 실천과제로 설정하였다(여성가족부, 2014. 2. 11).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청소년 활동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한다.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빈틈없는 청소년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치유 지원을 위해서는, 효과적 중독치유를 위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독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청소년정책 분석 평가를 활성화하고, 청소년정책 관계기관협의회 기능 개편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연계 협력을 강화한다.

2) 한국 청소년정책의 주요 내용

(1) 제1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1993~1997)

제1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의 기본 이념은 “우수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건강한 청소년문화를 창달하고 덕, 체, 지, 예를 고루 갖춘 전인적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여 청소년들이 신한국의 주인으로서 개혁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두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각자의 취미와 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심신을 단련하며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청소년단체와 지도자를 육성하는 한편,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대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의 역할 증대, 청소년 보호 및 선도,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

교류 확대 지원, 국민참여 확산 및 추진체제 강화라는 5가지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가정과 학교의 역할 증대를 위해, 가정의 기능 회복과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의 체계화를 강조하고, 학교의 전인교육 및 문제 학생 지도 강화를 설정하였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에는 어려운 청소년 지원강화, 저소득층 청소년의 종합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청소년 비행의 예방, 비행 청소년에 대한 결연사업과 가출청소년 찾아주기 운동이 포함되었다.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지원에는 수련거리의 개발 및 활용, 청소년활동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단체 육성,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충하고 종합수련터전 조성이 포함되었다. 청소년 교류 확대 지원에는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및 국제청소년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남북청소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 확산 및 추진체제 강화를 위해 청소년육성정책 홍보와 청소년 육성 추진체제 강화를 세부정책과제로 포함하였다.

이상의 제1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은 청소년을 선도, 보호, 교화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를 미래의 준비기로 바라보는 등 전통적인 청소년 육성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나,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이 정부의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윤철경 외, 2008: 38~39, 42).

(2) 제2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1998~2002)

제2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서는 지금까지의 청소년정책이 청소년을 미성숙한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성찰을 근거로, 청소년에 대한 발상을 전환하여 청소년을 정책과 활동의 주체가 되는 선진형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권익을 보장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율과 참여를 적극 신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은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적 참여기회 확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중심의 수련활동 체제 구축, 국제화·정보화 시대의 주도 능력 배양,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강화와 참여확산이라는 5가지 정책분야와 20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문화관광부, 1998: 7; 윤철경 외, 2008).

우선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적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자생·자율 활동을 지원하며,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봉사활동 생활화와 청소년의 권리와 시민권을 신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중심의 수련활동 체제 구축을 위해, 청소년이 활동주체가 되는 공간 확충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특성화·차별화된 수련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청소년단체의 자율화 및 자기특성화 및 열린 운영을 지향하고, 전문화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배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국제화·정보화시대의 주도 능력 배양을 위해, 청소년의 창조적 문화감수성을 함양하고, 지역간, 국가간 청소년 교류를 내실화하는 동시에 남북청소년 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정보능력 향상과 정보문화를 육성한다.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청소년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소외 및 농촌 청소년을 위한 복지를 증진하며 장애청소년의 자활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직업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강화와 참여확산을 위해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도덕성 회복을 통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며, 문제 청소년 선도와 예방 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를 강조하였다.

상술한 제2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은 청소년의 권리와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여건을 확충하였으며,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또한 청소년 복지지원과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해 청소년 사업 지원과 기금 확충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 참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소홀하였고,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성 추진체제 구축이 부진하였으며, 정부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기능이 미흡했다는 반성이 제기되었다(윤철경 외, 2008).

(3)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맞춰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수용하고, 주5일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었다(청소년육성위원회, 2003). 특히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은 제2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 대한 성과와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한편으로 제3차 청소년육성계획의 수립 배경은 상술한 제2차 청소년육성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는 청소년의 열악한 인권 상황, 주5일제 도입에 대비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 지식정보화로 인한 청소년 성장 발달에 유해한 각종 정보와 환경,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청소년 실업과 불안한 고용 환경 및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권리 신장 및 자발적 참여 기반 구축, 주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자원 강화, 청소년 건강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그리고 추진체계 정비 및 범국민적 참여 확산을 5대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4)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

2007년도에 마련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3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던 국가의 청소년기본 정책의 공과분석을 토대로 청소년정책 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8. 1).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성장 동력으로서의 청소년 역량강화의 필요성 증대,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에 대비한 청소년활동 참여기반 취약,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위기·취약계층 청소년의 증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다양한 활동경험 부족, 청소년 유해환경의 지속적 증가,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위해요인의 증가 등을 제시하면서 전체 청소년들의 '역량강화'와 소외 청소년을 위한 '기회균등'을 정책이념으로 선정하였다.

상술한 내용을 토대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사회적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복지 증진,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사회적 역량 강화에서는 청소년 활동 및 성취 지원, 청소년 참여와 직업역량 개발, 다문화·글로벌 역량 함양을 세부 정책 과제로 설정하였다. 청소년 인권과 복지 증진에서는 청소년 인권 및 건강·안전 증진, 어려운 청소년 복지지원 강화, 위기청소년 사회통합 지원을 세부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서는 청소년 건전 생활 환경 마련, 청소년 유익 매체환경 조성, 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마지막으로 청소년 정책추진체계 정비에서는 청소년 지원인프라 보강,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강화를 세부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5개년 계획들이 청소년 활동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 인력 등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로 귀결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 청소년 사회적 역량강화를 첫 번째 정책 과제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있는 현실과 글로벌시대에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회균등을 청소년정책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로 볼 수 있다(김광웅 외, 2009).

(5)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생활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 환경과 정책수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의해 마련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2).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는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가족구조 및 형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또한 지나친 학업경쟁으로 인한 청소년의 불균형한 생활패턴의 증가와 청소년 유해매체 및 학교폭력 현상도 포함된다.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취약 및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여성, 이주 노동자,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취약, 위기집단 청소년의 증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외에, 청소년들의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배경으로도 볼 수 있다. 그 외 청년 노동시장의 위축과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후기청소년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어 이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수립되었다.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및 정책참여 기회 확대, 취약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그리고 청소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 정비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경제활동 및 결혼 연령 지연 등에 따른 다양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연계망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점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글로벌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역량간의 불균형 문제와 취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및 성범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술한 향후과제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연계 선상에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기초하여 범부처 차원의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청소년정책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를 설정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1차 청소년육성계획부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한국 청소년정책의 주요 내용

	주요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제1차 청소년육성 기본계획 (1993~1997)	1. 가정과 학교의 역할 증대 2. 청소년보호 및 선도 3.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지원 4. 청소년 교류 확대 지원 5. 국민참여 확산 및 추진체제 강화	1-1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	2-1 어려운 청소년지원 강화
		1-2 학교의 전인교육 및 문제 학생 지도	2-2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2-3 비행 청소년예방과 계도
		3-1 수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2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단체 육성	4-1 청소년국제교류 지원 4-2 남북한 청소년 동질성 회복
제2차 청소년육성 기본계획 (1998~2002)	1.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적인 참여 확대 2.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중심의 수련활동 체제 구축 3. 국제화·정보화 시대의 주도 능력 배양 4.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5.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와 참여 확산	5-1 청소년육성정책 홍보 5-2 청소년 육성 추진체제 강화	
		1-1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1-2 청소년의 자생·자율 활동 지원 1-3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봉사활동의 생활화 1-4 청소년의 권리와 시민권 신장	2-1 청소년이 활동주체가 되는 공간확충과 운영 활성화 2-2 특성화·차별화된 수련프로그램 개발·보급 2-3 청소년단체의 자율화·자기 특성화 및 열린 운영 2-4 전문화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배치
		3-1 청소년의 창조적 문화감수성 함양 3-2 지역간·국가간 청소년 교류의 내실화 3-3 남북청소년 교류 기반조성 3-4 청소년의 정보능력 향상과 정보문화 육성	4-1 청소년상담활동의 강화 4-2 소외 및 농촌 청소년을 위한 복지증진 4-3 장애청소년의 자활 지원 4-4 청소년의 직업 및 자립능력 향상

	주요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5-1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5-2 도덕성 회복을 통한 시민 의식 함양 5-3 문제 청소년 선도 예방 5-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유해환경 정화	
제3차 청소년육성 기본계획 (2003~2007)	1. 청소년 권리 신장 및 자발적 참여 기반 구축 2. 주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3.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자원 강화 4. 청소년 건강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5. 추진체제 정비 및 범국민적 참여 확산	1-1 청소년 정책참여 기회 확대 1-2 청소년 시민·자치권 향상 1-3 청소년 자율·봉사활동 강화	2-1 청소년활동 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2-2 청소년단체 활성화 및 청소년지도자 양성 2-3 청소년활동 지원 및 특성화·다양화 2-4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2-5 창조적인 청소년 사이버 문화 진흥 2-6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지원
		3-1 청소년 사회진출 연계 서비스 추진 3-2 소외계층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3-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3-4 학교부적응 청소년 지원체제 구축	4-1 청소년 안전과 건강 증진 4-2 청소년 선도·보호 인프라 확충 4-3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4-4 청소년 약물 오·남용 및 성비행 대책 추진 4-5 청소년 폭력 및 학대 예방
		5-1 청소년 관계 법령 및 조직 정비 5-2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 5-3 청소년육성 재원의 획기적 확충 5-4 범국민적 참여 확산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08~2012)	1. 청소년 사회적 역량 강화 2. 청소년 인권과 복지 증진 3.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4. 청소년정책 추진체제 정비	1-1 청소년활동·성취 지원 1-2 청소년 참여와 직업역량 개발 1-3 다문화·글로벌 역량 함양	2-1 청소년 인권 및 건강·안전 증진 2-2 어려운 청소년 복지지원 강화

	주요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2-3 위기청소년 사회통합 지원
		3-1 청소년 건전 생활환경 마련	4-1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4-2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3-2 청소년 유익 매체환경 조성	
		3-3 청소년 성보호 강화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13~2017)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2.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 3.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 지원 4.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5.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1-1 청소년 역량증진 활성화 1-2 글로벌 다문화 역량 1-3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2-1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2-2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2-3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3-1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3-2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3-3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4-1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4-2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3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5-1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5-2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5-3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강화	

출처 : 윤철경 외(2008), 신정부 청소년정책 발전방향과 과제; 관계부처합동(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국가청소년위원회(2008),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육성위원회(2003),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안) [2003~2007]의 내용을 재구성.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혁 및 발전 과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육성법에 의거하여 1989년 7월 1일에 ‘한국청소년연구원’으로 개원하였고, 1993년 1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관련 실태 조사 및 정책 개발,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 및 보급, 수련거리 운영 방법 및 지원, 청소년지도자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관련 조사 및 연구의 비중보다는 수련거리 개발 및 보급,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재 개발 등의 업무가 주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 후, 1999년 1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2005년 인문사회연구회와 경제사회연구회의 통합으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소속이 이관되었다. 2007년 5월에는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청소년의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 및 지원 등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자료축적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관련 이론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생활·의식 실태와 변화 양상에 대한 다양한 시계열적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또한 대외교류 및 협력사업을 통해 국내외 청소년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연구 및 정책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 초대 이윤구 원장의 취임을 시작으로 2014년 7월 현재 11대 노혁 원장이 취임하였고 2014년 12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로의 기관 이전을 계기로 국책연구기관 으로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청소년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가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선제적 정책 개발을 도모하고, 중장기적 청소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청소년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요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요 연혁

일시	내용
1989. 7.	한국청소년연구원 개원, 초대 이윤구 원장 취임
1993. 1.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확대 개편, 제2대 민준기 원장 취임
1993. 5.	제1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수립 참여
1995. 9.	제3대 조영승 원장 취임
1996. 1.	청소년육성을 위한 종합구상 수립(청소년육성청 발간)
1997. 1.	제4대 김사흥 원장 취임
1998. 6.	제5대 최종옥 원장 취임
1998. 7.	제2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수립 참여
2000. 10.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사회변화와 청소년육성정책 수립의 과제” 국제심포지움 개최
2001. 6.	제6대 권이중 원장 취임
2002. 6.	개원 13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글로벌시대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미래전망” 개최

일시	내용
2003. 10.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수립 참여
2004. 8.	제7대 배규한 원장 취임
2004. 11.	제1회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 “동북아의 미래와 청소년의 역할” 국제심포지움 개최
2005. 11.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
2006. 8.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화과정 비교 국제회의
2006. 11.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
2006. 12.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지 등재
2007.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2007. 8.	제8대 이종태 원장 취임
2007. 11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
2008. 10.	제9대 이명숙 원장 취임
2008. 11.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
2009. 3.	청소년 글로벌역량개발 및 현장지원 네트워크 구축 MOU 체결
2009. 6.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및 기념식
2009. 11.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
2009. 12.	일본청소년연구소와 학술교류 협정서 체결
2010. 6.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개소
2010. 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착수
2011. 3.	제10대 이재연 원장 취임
2011. 11.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
2012. 11.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
2013. 3	학업중단예방센터 개소
2013. 11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
2014. 7.	제11대 노혁 원장 취임
2014. 10.	개원 25주년 기념식,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
2014. 12.	세종특별자치시 기관 이전

제 III 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 분석

1. 연구과제 동향 분석
2. 연구과제 내용 분석
3. 연구과제의 성과 및 향후 과제

제 III 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 분석

1. 연구과제 동향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5년 동안 내부과제(기본과제, 수시과제, 협동과제, 공모과제) 722건의 연구보고서와 외부과제(수탁과제) 292건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³⁾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연도별 연구과제 수는 <표 III-1>과 같다. 이 절에서는 1,014건의 연구보고서 중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인쇄본 또는 파일 형태의 연구보고서가 존재하는 886건(내부과제 697건, 외부과제 189건)⁴⁾에 한정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전체 연구과제에 대한 동향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연구과제 유형(내부과제 vs. 외부과제) 및 연구주제에 따른 동향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III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연도별 연구과제 수

연도	유형	내부				외부	합계	연도
		기본	수시	협동	공모	수탁		합계
1989		8	·	·	·	·	8	1989~1993 (50건)
1990		11	·	·	·	·	11	
1991		12	·	·	·	·	12	
1992		12	·	·	·	·	12	
1993		7	·	·	·	·	7	
1994		7	·	·	·	·	7	1994~1998

3) 연구과제 총 수는 연구과제 리스트에 제시된 연구보고서에 기초해서 이루어졌으며, 동일 과제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시 리즈물도 개별 연구보고서로 간주하고 숫자에 포함하였다.

4) 연구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내부과제보다 외부과제가 다수를 차지했다. 내부과제는 722건 중 697건, 외부과제는 292건 중 189건의 보고서가 존재해 전체 연구과제에 대한 동향 분석에서 외부과제 수가 상당 수 제외되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년도	유형	내부				외부	합계	년도
		기본	수시	협동	공모	수탁		합계
1995		18	·	·	·	·	18	(77건)
1996		22	·	·	·	·	22	
1997		20	·	·	·	·	20	
1998		10	·	·	·	·	10	
1999		36	·	·	·	·	36	1999~2003 (249건)
2000		64	·	·	·	·	64	
2001		25	·	·	9	15	49	
2002		23	·	·	10	15	48	
2003		24	·	·	10	18	52	
2004		24	·	·	6	15	45	2004~2008 (275건)
2005		22	4	5	·	22	53	
2006		20	9	9	·	21	59	
2007		18	10	12	·	24	64	
2008		21	2	7	·	24	54	
2009		28	9	12	·	18	67	2009~2013 (363건)
2010		24	6	12	·	22	64	
2011		27	7	10	·	26	70	
2012		24	12	11	·	34	81	
2013		24	8	11	·	38	81	
합계		531	67	89	35	292	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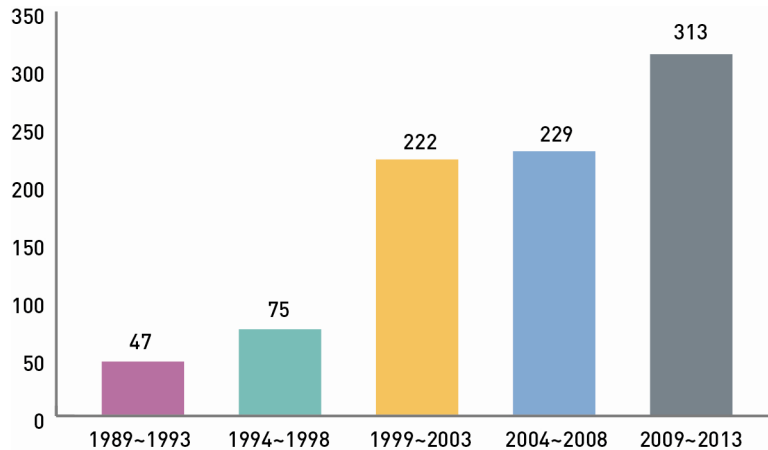
1) 전체 연구과제 동향 분석

(1) 연구과제의 수와 유형

우선 전체 연구과제를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연구과제 수를 파악한 결과는 <표 III-2>와 같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수행된 연구과제는 전체 연구과제 중 1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2003년 시기에 연구과제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된 연구과제는 313건으로 다른 어느 시기보다 수행된 연구과제 수가 많았으며, 이때 수행된 과제가 전체 과제 중 약 35%를 차지하였다.

표 Ⅲ-2 연도별 전체 연구과제의 수

연도	빈도(과제 수)	백분율(%)
1989~1993	47	5.3
1994~1998	75	8.5
1999~2003	222	25.1
2004~2008	229	25.8
2009~2013	313	35.3
합계	886	100.0



【그림 Ⅲ-1】 연도별 전체 연구과제 수 변화 추이

전체 연구과제 886건 중 내부과제와 외부과제는 대략 8:2의 비율로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외부과제 중 상당수가 제외된 점을 고려할 때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표 Ⅲ-1>에 제시된 과제수를 활용할 경우 내부과제와 외부과제는 7:3의 비율로 수행되었다고 봐야 한다. 다시 내부과제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본과제가 5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수탁과제(21.3%), 협동과제(10.3%), 수시과제(7.1%) 순서임을 알 수 있다. 공모과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1~2004년 동안 한시적으로 외부 연구자들이 제안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표 III-3 연구과제 유형에 따른 전체 연구과제 수

	빈도(과제 수)	백분율(%)
내부과제	697	78.7
외부과제	189	21.3
기본	508	57.3
수시	63	7.1
공모	35	4.0
협동	91	10.3
수탁	189	21.3
합계	88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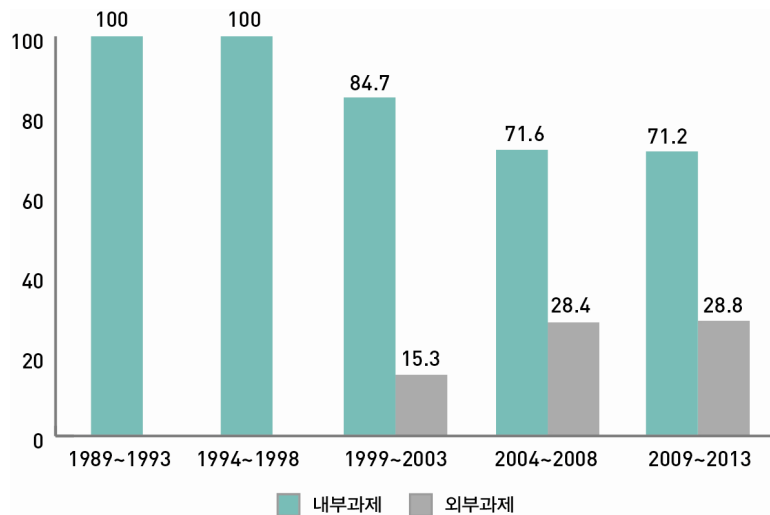


【그림 III-2】 전체 연구과제의 유형 분포

한편 <표 III-4>에는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변화 추이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바와 같이, 1989년부터 1998년까지는 내부과제만 수행되었다. 외부과제가 처음 수행되었던 2001년이 포함된 1999~2003년에는 내부과제와 외부과제가 대략 8.5:1.5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외부과제의 비율은 2004~2008년 동안에 더 증가하여 내부과제 vs. 외부과제의 비율이 7:3이 되었고 이 비율은 2009~2013년에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내부과제와 외부과제의 비율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연구과제의 수가 점차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대내외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방증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표 III-4 연도별 전체 연구과제의 유형 I

시기	내부과제		외부과제		합계	
	빈도(과제수)	백분율(%)	빈도(과제수)	백분율(%)	빈도(과제수)	백분율(%)
1989~1993	41	100	—	—	41	100.0
1994~1998	75	100	—	—	75	100.0
1999~2003	188	84.7	34	15.3	222	100.0
2004~2008	164	71.6	65	28.4	229	100.0
2009~2013	223	71.2	90	28.8	313	100.0
합계	697	78.7	189	21.3	88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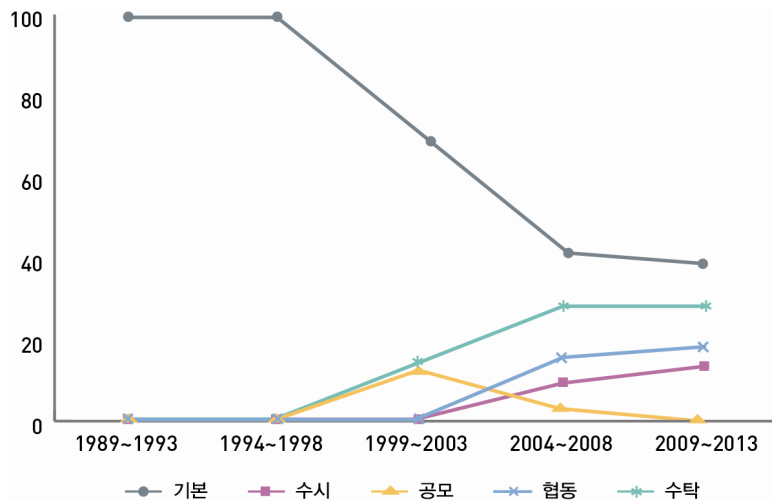


【그림 III-3】 연도별 전체 연구과제의 유형 변화 추이 I

<표 III-5>에는 연도별 연구과제 유형의 변화 추이를 제시하였다. 1999~2003년까지 전체 과제 중 약 70%의 비율을 차지하였던 기본과제는 최근에는 그 비율이 40%대로 감소하였으며, 수시과제(10% 내외)와 협동과제(15~17%)가 적절한 비율을 채우는 동시에 수탁과제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III-5 연도별 전체 연구과제의 유형 II

시기	기본		수시		공모		협동		수탁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989 ~ 1993	41	100.0	-	-	-	-	-	-	-	-	41	100.0
1994 ~ 1998	75	100.0	-	-	-	-	-	-	-	-	75	100.0
1999 ~ 2003	159	71.6	-	-	29	13.1	-	-	34	15.3	222	100.0
2004 ~ 2008	101	44.1	22	9.6	6	2.6	35	15.3	65	28.4	229	100.0
2009 ~ 2013	126	40.3	41	13.1	-	-	56	17.9	90	28.8	313	100.0
전체	508	57.3	63	7.1	35	4.0	91	10.3	189	21.3	886	100.0



【그림 III-4】 연도별 전체 연구과제의 유형 변화 추이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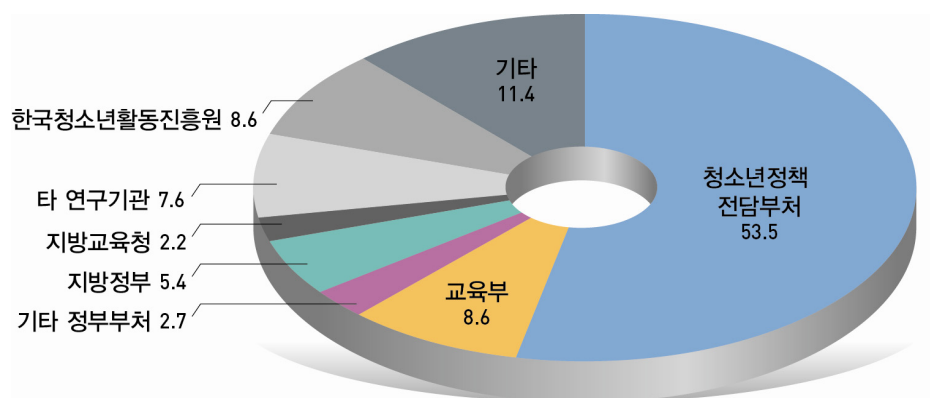
수탁과제의 발주처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6>과 같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발주처는 청소년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과거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53.5%)임을

알 수 있으며, 기타(11.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8.6%)과 교육부(8.6%), 타 연구기관(7.6%)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수탁과제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정책 전담부서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최근 교육부의 수탁과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청소년정책들이 교육정책과의 관련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II-6 수탁과제 발주처(2001~2013년 연구에 한함)

	빈도(과제 수)	백분율(%)
청소년정책 전담부처	99	53.5
교육부	16	8.6
기타 정부부처	5	2.7
지방정부	10	5.4
지방교육청	4	2.2
타 연구기관	14	7.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6	8.6
기타	21	11.4
합계	185	100.0

* 연구과제 리스트에는 있지만 보고서가 없는 수탁과제 4건은 제외함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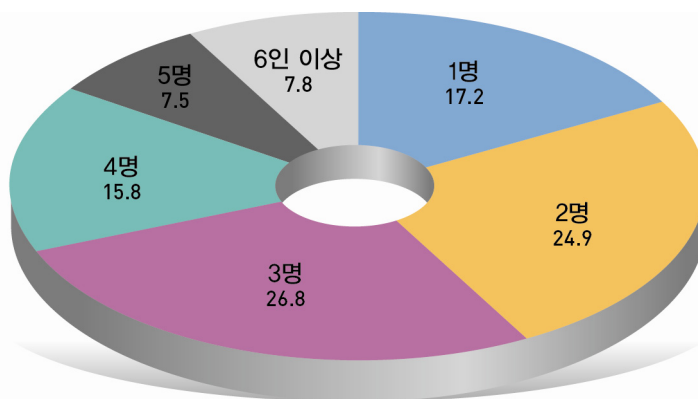
【그림 III-5】 수탁과제 발주처

(2) 연구참여자

<표 III-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과제당 연구참여자 수는 3명이 2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2명(24.9%)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과제 중 절반 정도가 2~3명의 연구참여자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 수가 1명인 연구과제는 17.2%, 5인 및 6인 이상 과제는 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연구참여자 수에 따른 전체 연구과제 수

연구참여자 수	빈도(과제 수)	백분율(%)
1	150	17.2
2	217	24.9
3	233	26.8
4	138	15.8
5	65	7.5
6인 이상	68	7.8
합계	871	100.0



【그림 III-6】 연구참여자 수에 따른 전체 연구과제 비율

연도별 연구과제 당 평균 연구참여자 수의 변화 추이는 <표 III-8>과 같다. 1996년 이전 과제까지 연구참여자의 구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1989~1998년의 경우 연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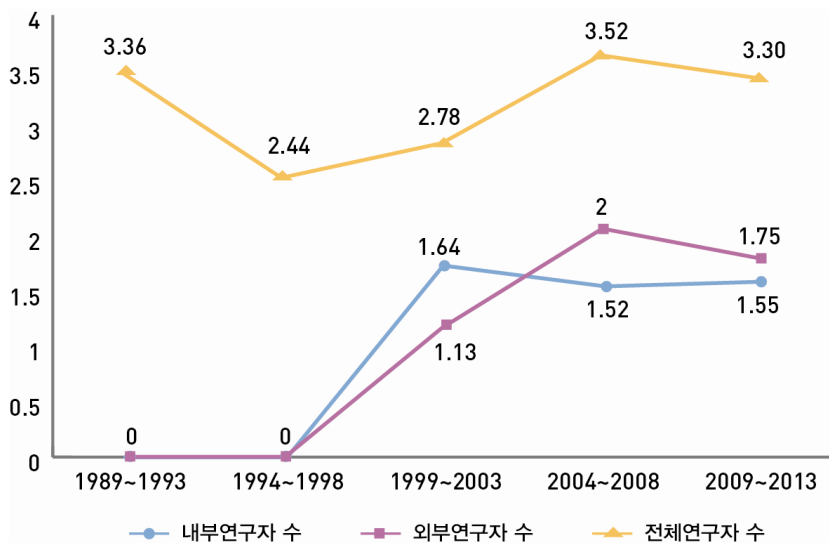
당 평균 전체연구자 수만 제시하였다. 1989~1993년의 경우, 평균 전체 연구자 수는 3.36명이며 1994~1998년에는 그 수가 2.44명으로 감소하였다. 1999~2003년에는 평균 내부연구자 수가 외부연구자 수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04~2008년에는 평균 내부연구자 수보다 외부연구자 수가 더 증가하였으며 평균 전체연구자 수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9~2013년에는 평균 외부연구자 수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평균 내부연구자 수에 비해 외부연구자 수가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8 연도별 전체 연구과제 당 평균 연구참여자 수 변화 추이

연도	내부연구자 수	외부연구자 수	전체연구자 수
1989~1993	—	—	3.36
1994~1998	—	—	2.44
1999~2003	1.64	1.13	2.78
2004~2008	1.52	2.00	3.52
2009~2013	1.55	1.75	3.30
전체	1.72	1.43	3.16

* 연구참여자 수를 알 수 없는 연구물 15개는 분석에서 제외(예 : 기관명으로 발간된 연구물)

* 1995년까지 내외부 연구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1989~1998년까지는 전체연구자 수만 제시함



【그림 III-7】 연도별 전체 연구과제 당 평균 연구참여자 수 변화 추이

한편, 전체 886건의 과제 중 외부연구자가 1명부터 5명까지 참여했던 과제에 한정해 외부연구자의 소속을 살펴보았다. 이들 외부연구자 중 일부는 중복되어 계산되었는데 전체 외부연구자는 826명으로 이들의 소속은 다음 <표 III-9>와 같다. 이들 중 약 70%는 대학교수로 학계 소속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타 연구기관으로 약 17%를 차지하였으며, 청소년현장에 소속된 경우가 약 9%였다. 정부와 초중등학교 및 기타 소속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9 연구과제 참여 외부연구자의 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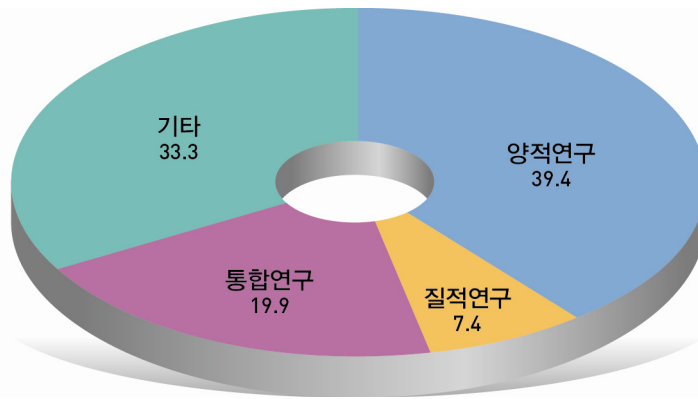
소속	학계(대학)	청소년현장	타 연구기관	정부	초중등학교	기타	합계
명(%)	574 (69.5)	73 (8.8)	141 (17.1)	13 (1.6)	7 (0.8)	18 (2.2)	826 (100.0)

(3) 연구방법

연구과제별로 어떤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양적연구(39.4%)였으며, 기타가 33.3%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프로그램 개발이나 기관 평가 또는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결합한 연구과제를 기타에 포함시켰는데, 기타의 비중이 높은 것은 한편으로 연구원 설립 초기 수행되었던 연구과제에서 이러한 연구방법을 주로 활용했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 연구과제 중 기관 평가, 매뉴얼 개발, 평가 업무와 관련된 과제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통합한 연구는 19.9%로 나타났으며, 질적연구는 7.4%에 그쳐, 질적연구를 활용한 연구 비중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구가 주로 양적연구 결과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질적연구가 수행된 경우임을 고려할 때, 향후 독자적으로 질적연구만을 적용한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III-10 연구방법에 따른 전체 연구과제 수

	빈도(과제 수)	백분율(%)
양적연구	347	39.4
질적연구	65	7.4
통합연구	175	19.9
기타	294	33.3
합계	8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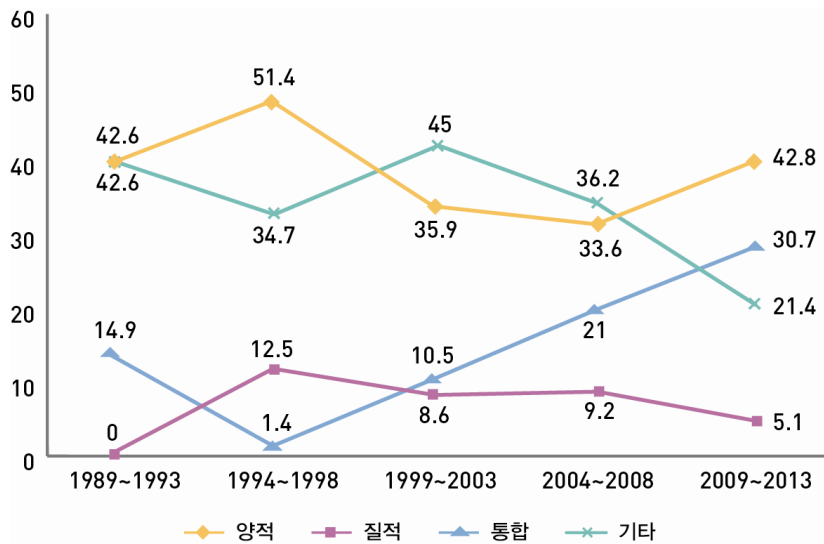


【그림 III-8】 연구방법에 따른 전체 연구과제 비율

<표 III-11>은 연도별 연구방법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양적연구방법은 연도별로 변화가 있긴 하지만 각 시기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주된 연구방법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1999~2003년 시기, 2004~2008년 시기에는 기타 연구방법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로 증감을 보이고 있지만 통합연구방법은 1999~2003년 시기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1994~1998년 시기에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약 12%로 나타나 다른 시기에 비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된 반면, 최근으로 올수록 오히려 활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009~2013년 시기 동안 수행된 연구들 중 약 43% 가량은 양적연구방법을, 약 30%는 통합연구방법을, 그리고 약 21%는 기타 연구방법을 활용한 반면, 단 5%만이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과제 발굴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I -11 연도별 전체 연구과제의 연구방법 변화 추이

시기	양적		질적		통합		기타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989 ~ 1993	20	42.6	—	—	7	14.9	20	42.6	47	100.0
1994 ~ 1998	37	51.4	9	12.5	1	1.4	25	34.7	72	100.0
1999 ~ 2003	79	35.9	19	8.6	23	10.5	99	45.0	220	100.0
2004 ~ 2008	77	33.6	21	9.2	48	21.0	83	36.2	229	100.0
2009 ~ 2013	134	42.8	16	5.1	96	30.7	67	21.4	313	100.0
전체	347	39.4	65	7.4	175	19.9	294	33.3	8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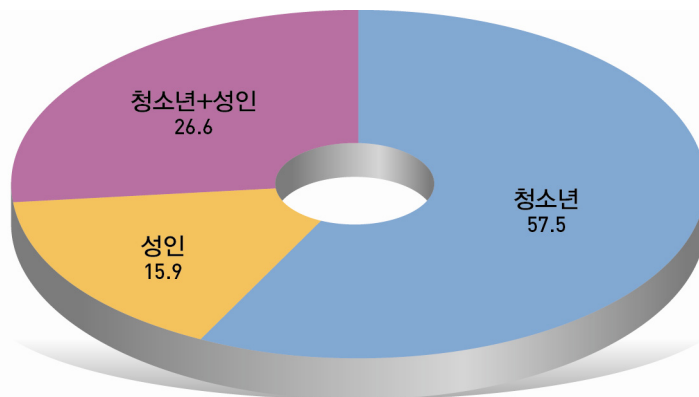
【그림 III -9】 연도별 전체 연구과제의 연구방법 변화 추이

(4) 조사대상

연구과제의 조사대상이 청소년과 성인 또는 이 두 집단을 모두 포함한 연구과제 617건 중, 청소년만을 조사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과제는 355건으로 전체에서 57.5%를 차지하였고, 성인만을 조사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98건(15.9%)이었으며 청소년과 성인을 모두 조사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164건(26.6%)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연구가 청소년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표 III -12 조사대상 별 연구과제 수

조사대상	빈도(과제 수)	백분율(%)
청소년	355	57.5
성인	98	15.9
청소년 + 성인	164	26.6
합계	617	100.0



【그림 III -10】 조사대상별 전체 연구과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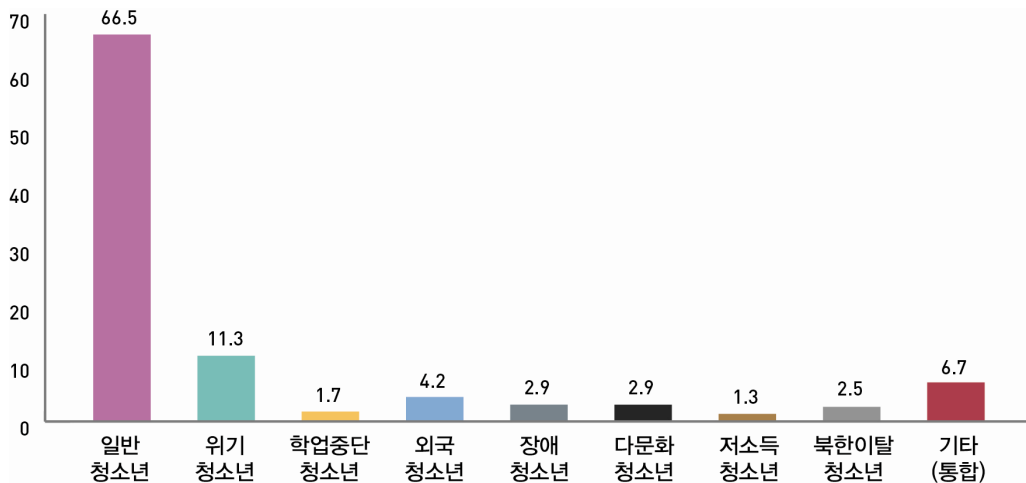
다음으로 <표 III-13>에는 조사대상 청소년의 내부 집단 및 성인 내부 집단별 과제수가 제시되어 있다. 우선 청소년과 청소년+성인을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과제 과제 478건 중 청소년 내부 집단별 과제수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가 6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위기청소년이 11.3%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청소년 내부 집단

중 2개 이상 집단을 통합한 기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는 6.7%, 외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는 4.2%로 나타났다. 향후 일반청소년 외에 청소년 내부 집단별로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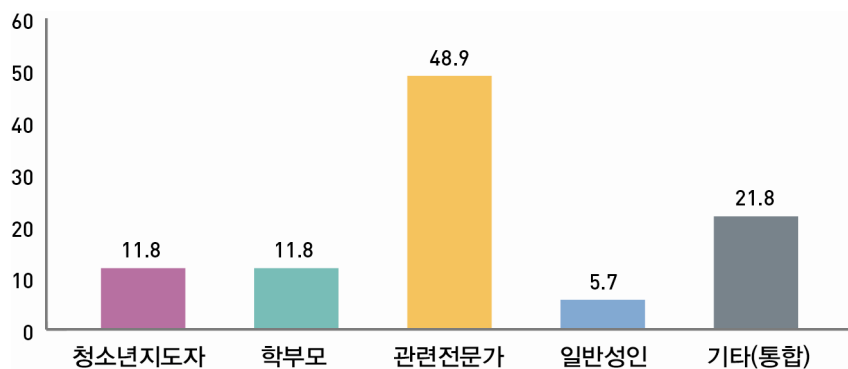
표 III -13 전체 연구과제의 조사대상 청소년 집단 및 성인 집단

청소년 집단	빈도	%	성인 집단	빈도	%
일반청소년	318	66.5	청소년지도자	31	11.8
위기청소년	54	11.3	학부모	31	11.8
학업중단청소년	8	1.7	관련전문가	128	48.9
외국청소년	20	4.2	일반성인	15	5.7
장애청소년	14	2.9	기타(통합)	57	21.8
다문화청소년	14	2.9			
저소득청소년	6	1.3			
북한이탈청소년	12	2.5			
기타(통합)	32	6.7			
합계	478	100.0	합계	262	100.0

다음으로 성인과 청소년+성인을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과제 262건 중에서는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8.9%로 가장 많았고, 성인 집단 중 2개 이상 집단을 통합한 기타가 21.8%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청소년지도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동일하게 11.8%를 차지한 반면, 일반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5.7%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 -11】 전체 연구과제의 조사대상 청소년 집단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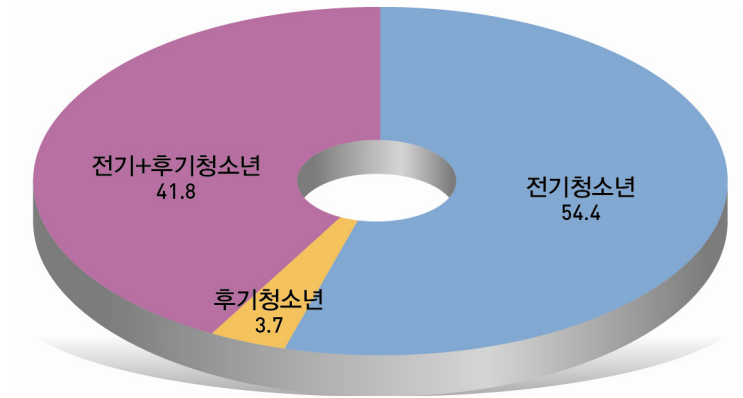


【그림 III-12】 전체 연구과제의 조사대상 성인 집단 비율

<표 III-14>에는 조사대상 청소년의 연령 집단을 제시하였다. 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 과제 중 약 55%를 차지하였으며, 전기와 후기청소년 집단 모두를 포함한 연구가 약 42%로 나타났다. 반면,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3.7%에 불과해 향후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제발굴과 연구수행이 요구된다.

표 III-14 전체 연구과제의 조사대상 청소년 연령 집단

조사대상	빈도(과제 수)	백분율(%)	조사대상	빈도(과제 수)	백분율(%)
전기청소년	280	54.4	초	10	1.9
			중	33	6.4
			고	32	6.2
			초+중	32	6.2
			중+고	116	22.6
			초+중+고	57	11.1
후기청소년	19	3.7	대	19	3.7
전기+후기청소년	224	41.8	중+고+대	18	3.5
			고+대	9	1.8
			초+중+고+대	197	36.5
전체 합계	513	100	전체합계	513	100



【그림 III -13】 전체 연구과제의 조사대상 청소년 연령 집단

2) 연구유형별 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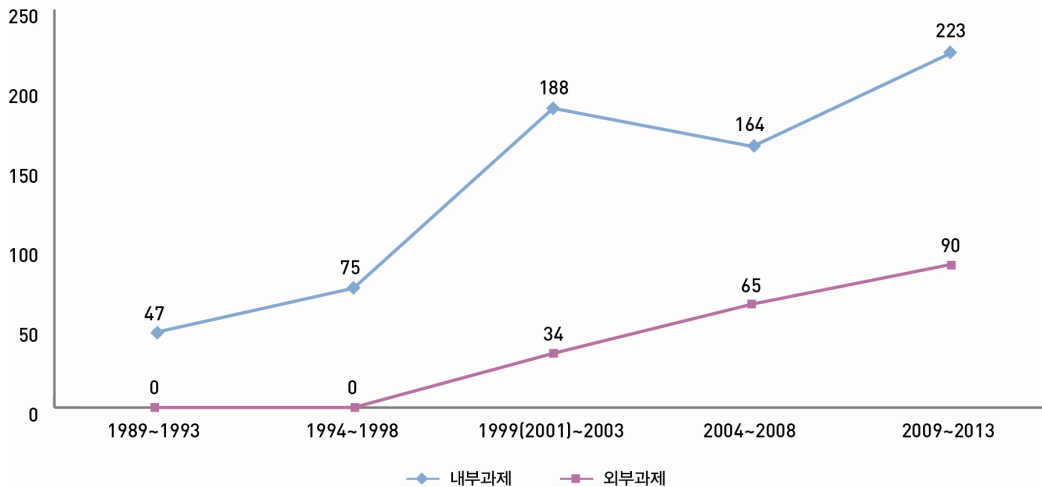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886건의 연구보고서를 연구유형별로 나누어 동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과제를 내부과제(기본, 수시, 협동, 공모과제)와 외부과제(수탁과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연구과제의 수

내부과제의 연도별 연구과제 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2005년부터 수시과제와 협동과제가 처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내부과제의 수는 기본과제와 일시적으로 수행되었던 공모과제만을 포함한다. 1989~1998년까지 내부과제의 수는 많지 않았으나, 1999~2003년 시기에는 188건의 보고서가 발간될 정도로 과제 수가 증가하였다. 2004~2008년에는 오히려 그 수가 다소 감소하다가 2009~2013년에 수행된 내부과제 수는 223건으로 전체 내부과제 중 3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1년 외부과제가 처음 수행된 이후 외부과제의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2014년 11월 21일 현재 외부과제의 수는 41건으로 그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II -15 연도별 연구유형 과제의 수

연도	내부과제		외부과제	
	빈도(과제수)	백분율(%)	빈도(과제수)	백분율(%)
1989~1993	47	6.7	—	—
1994~1998	75	10.8	—	—
1999(2001)~2003	188	27.0	34	18.0
2004~2008	164	23.5	65	34.4
2009~2013	223	32.0	90	47.6
합계	697	100.0	18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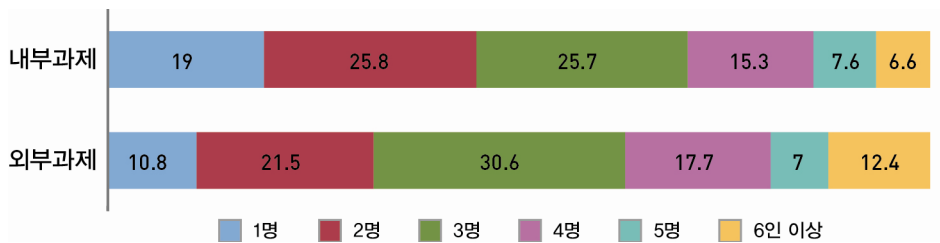
【그림 III -14】 연도별 연구유형 과제 수의 변화 추이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 수에 따른 연구유형별 연구과제 수는 <표 III-16>과 같다. 내부과제의 경우, 연구참여자 수는 2명(25.8%)과 3명(25.7%)에 의해 수행된 연구과제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1명에 의해 수행된 과제는 19%, 4명에 의해 수행된 과제는 15.3%를 차지하였다. 외부과제의 경우, 연구참여자 수는 3명이 30.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2명(21.5%)과 4명(17.7%)의 비율이 높았고, 6인 이상 되는 연구과제도 1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과제에 비해, 외부과제의 연구참여자 수가 다소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 -16 연구참여자 수에 따른 연구유형별 과제 수

연구참여자 수	내부과제		외부과제	
	빈도(과제 수)	백분율(%)	빈도(과제 수)	백분율(%)
1	130	19.0	20	10.8
2	177	25.8	40	21.5
3	176	25.7	57	30.6
4	105	15.3	33	17.7
5	52	7.6	13	7.0
6인 이상	45	6.6	23	12.4
합계	685	93.4	18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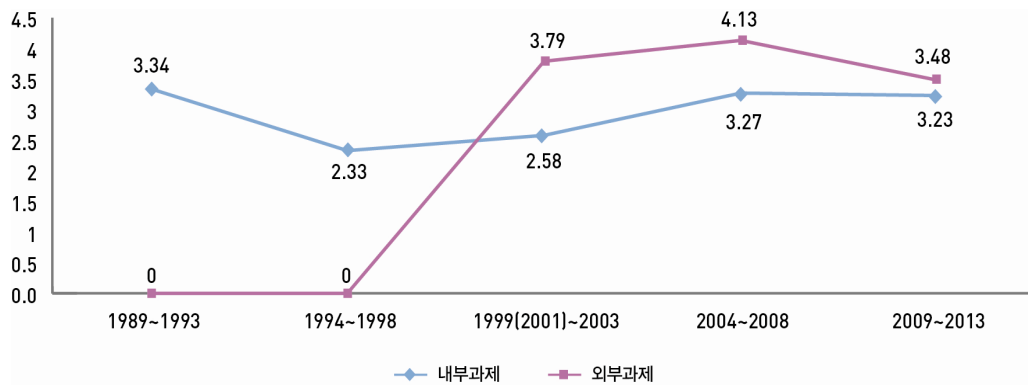
【그림 III -15】 연구참여자 수에 따른 연구유형별 과제 비율

연도별 연구유형별 평균 연구참여자 수의 변화 추이는 <표 III-17>과 같다. 내부과제의 경우, 평균 전체 연구자 수는 3~4명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으며, 1999~2003년 시기에는 평균 내부연구자 수가 외부연구자 수에 비해 약간 더 많지만, 그 이후 시기에는 오히려 역전되어 평균 내부연구자 수에 비해 외부연구자 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부과제의 경우, 모든 시기에 걸쳐 평균 내부연구자 수가 외부연구자 수에 비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부과제에 비해 평균 전체 연구자 수도 더 많았다.

표 III -17 연도별 연구유형에 따른 평균 연구참여자 수 변화 추이

연도	내부과제			외부과제		
	내부 연구자 수	외부 연구자 수	전체 연구자 수	내부 연구자 수	외부 연구자 수	전체 연구자 수
1989~1993	—	—	3.34	—	—	—
1994~1998	—	—	2.33	—	—	—
1999(2001)~2003	1.48	1.11	2.58	2.53	1.26	3.79
2004~2008	1.18	2.10	3.27	2.38	1.75	4.13
2009~2013	1.38	1.85	3.23	1.99	1.49	3.48
전체	1.59	1.41	2.99	2.22	1.54	3.76

* 1995년까지 내외부 연구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1994~1998년까지는 전체연구자 수만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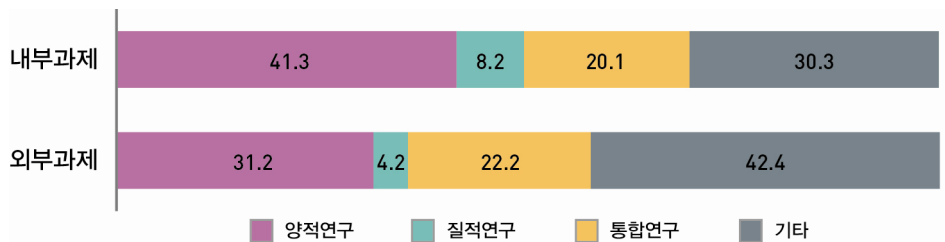
【그림 III -16】 연도별 연구유형에 따른 평균 연구참여자 수 변화 추이

(3) 연구방법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유형별 연구과제 수는 <표 III-18>과 같다. 우선 내부과제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활용된 방법은 양적연구방법(41.3%)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이 기타 연구방법(30.3%)과 통합연구방법(20.1%)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질적연구방법은 약 8.0%로 활용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외부과제의 경우, 내부과제와 달리 기타 연구방법이 42.4%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그 다음이 양적연구방법(31.2%), 통합연구방법(22.2%)의 순서로 많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탁과제의 성격상 프로그램 개발, 기관 평가 등을 위한 정책 자문과 전문가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방법이 다수 활용된 결과로 보인다.

표 III-18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유형별 과제 수

	내부과제		외부과제	
	빈도(과제 수)	백분율(%)	빈도(과제 수)	백분율(%)
양적연구	286	41.3	59	31.2
질적연구	57	8.2	8	4.2
통합연구	139	20.1	42	22.2
기타	210	30.3	80	42.4
합계	692	100.0	18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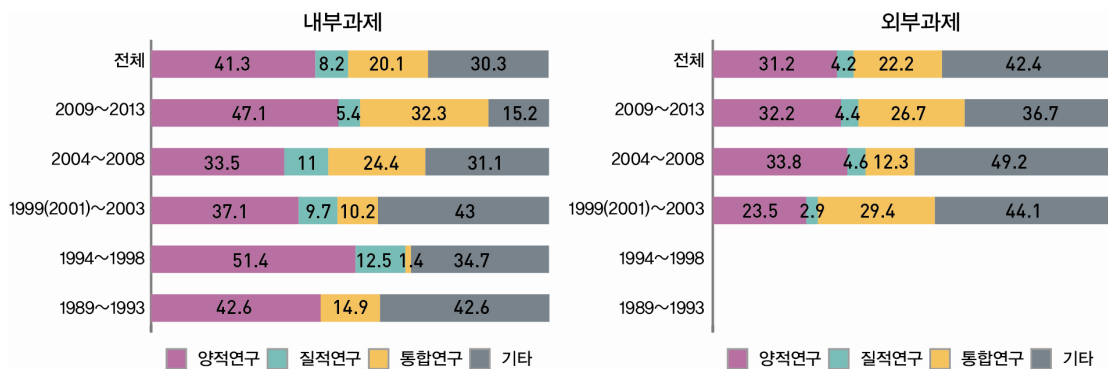


【그림 III-17】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유형별 과제 비율

연도별 연구유형에 따른 연구방법 활용 변화 추이는 <표 III-19>와 같다. 우선 내부과제의 경우, 양적연구방법은 시기별로 증감이 있긴 하지만 전체 과제 중 약 35~50% 비중을 차지하면서 활용되어 온 반면, 질적연구방법은 최근 들어 활용 비율이 매우 낮은 추세이며, 통합연구방법은 2004년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고, 기타 연구방법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외부과제의 경우, 내부과제와 달리 기타 연구방법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1~2003년, 2004~2008년 시기에는 여타 방법에 비해 기타 연구방법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2009~2013년 시기에는 역시 기타 연구방법의 비중이 가장 높긴 하지만 양적연구방법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내부과제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양적연구방법과 통합연구방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면, 외부과제에서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기타 연구방법의 비중이 높은 점이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표 III -19 연도별 연구유형에 따른 연구방법 변화 추이

시기	내부과제					외부과제				
	양적	질적	통합	기타	합계	양적	질적	통합	기타	합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1989 ~ 1993	20 (42.6)	-	7 (14.9)	20 (42.6)	47 (100.0)	-	-	-	-	-
1994 ~ 1998	37 (51.4)	9 (12.5)	1 (1.4)	25 (34.7)	72 (100.0)	-	-	-	-	-
1999 (2001) ~ 2003	69 (37.1)	18 (9.7)	19 (10.2)	80 (43.0)	186 (100.0)	8 (23.5)	1 (2.9)	10 (29.4)	15 (44.1)	34 (100.0)
2004 ~ 2008	55 (33.5)	18 (11.0)	40 (24.4)	51 (31.1)	164 (100.0)	22 (33.8)	3 (4.6)	8 (12.3)	32 (49.2)	65 (100.0)
2009 ~ 2013	105 (47.1)	12 (5.4)	72 (32.3)	34 (15.2)	223 (100.0)	29 (32.2)	4 (4.4)	24 (26.7)	33 (36.7)	90 (100.0)
전체	286 (41.3)	57 (8.2)	139 (20.1)	210 (30.3)	692 (100.0)	59 (31.2)	8 (4.2)	42 (22.2)	80 (42.4)	18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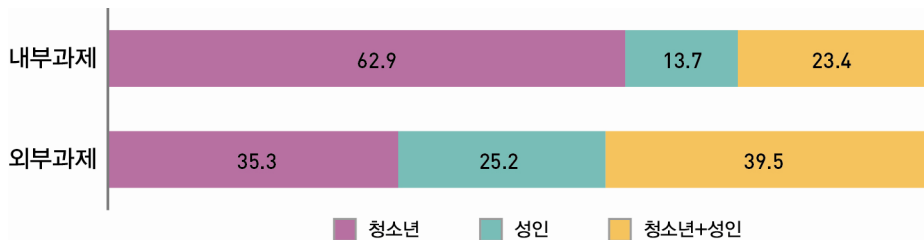
【그림 III -18】 연도별 연구유형에 따른 연구방법 변화 추이

(4) 조사대상

조사대상별 연구유형 과제 수는 <표 III-20>과 같다. 우선 내부과제에서의 주된 조사대상 집단은 청소년 집단(6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3.7%, 청소년과 성인집단을 동시에 조사한 연구는 117건으로 전체에서 23.4%를 차지하였다. 반면, 외부과제의 경우, 내부과제와 달리 청소년집단과 성인집단을 함께 조사대상으로 연구한 과제가 47건으로 전체에서 39.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이 청소년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과제(35.3%), 성인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과제(25.2%) 순서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III-20 조사대상별 연구유형 과제 수

조사대상	내부과제		외부과제	
	빈도(과제 수)	백분율(%)	빈도(과제 수)	백분율(%)
청소년	313	62.9	42	35.3
성인	68	13.7	30	25.2
청소년 + 성인	117	23.4	47	39.5
합계	498	100.0	119	100.0



【그림 III-19】 조사대상별 연구유형 과제 비율

연구유형별 조사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III-21>과 같다. 우선 내부과제의 경우, 청소년 집단 중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이 일반청소년에 치중된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 집단 중 2~3개 집단을 통합한 기타 연구가 14.1%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11.4%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내부과제 중 성인 집단에 대한 연구는 관련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4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타로

2~3개의 성인 집단을 통합 조사한 연구로 23.8%가 수행되었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3.0%로 많았다. 그에 비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4.3%로 매우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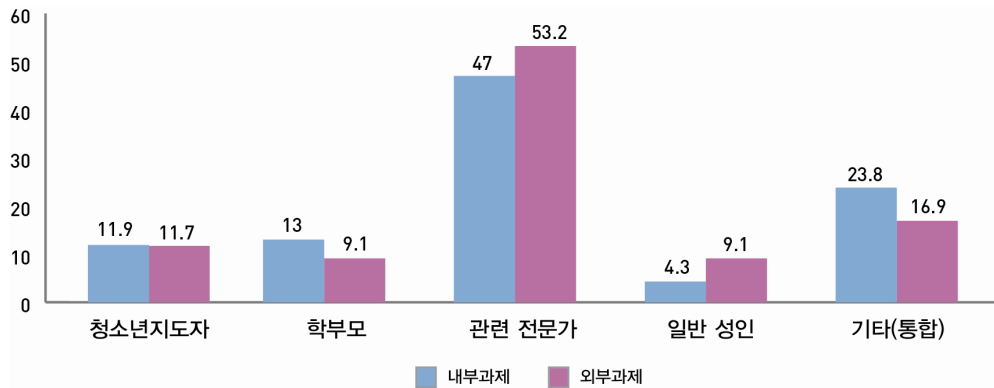
외부과제의 경우, 조사대상 청소년 집단 중 다수가 일반청소년 집단에 국한하여 이루어졌으며, 극소수의 과제가 나머지 청소년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이루어져 내부과제와 비교해 큰 차이점을 보였다.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외부과제의 경우,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53.2%)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성인 집단을 통합한 연구(16.9%), 청소년지도자를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11.7%)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 III -21 연구유형별 조사대상 청소년 집단 및 성인 집단

청소년 집단	내부과제	외부과제	성인 집단	내부과제	외부과제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일반청소년	261(59.7)	57(76.0)	청소년지도자	22(11.9)	9(11.7)
위기청소년	50(11.4)	4(5.3)	학부모	24(13.0)	7(9.1)
학업중단청소년	5(1.1)	3(1.6)	관련 전문가	87(47.0)	41(53.2)
외국청소년	19(4.3)	1(0.5)	일반 성인	8(4.3)	7(9.1)
장애청소년	14(3.2)	-	기타(통합)	44(23.8)	13(16.9)
다문화청소년	10(2.3)	4(5.3)			
저소득청소년	6(1.4)	-			
북한이탈청소년	11(2.5)	1(1.3)			
기타(통합)	61(14.1)	5(6.7)			
합계	437(100.0)	75(100.0)	합계	185(100.0)	77(100.0)



【그림 III -20】 연구유형별 조사대상 청소년 집단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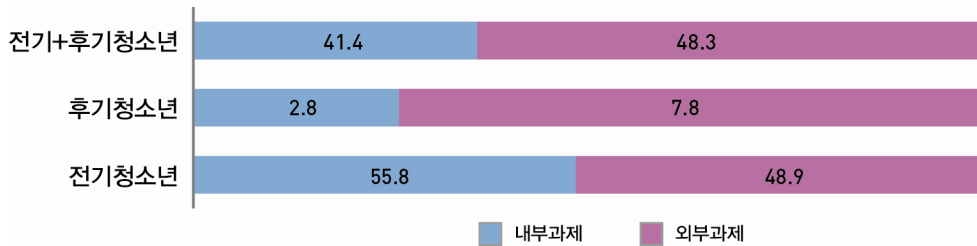


【그림 III-21】 연구유형별 조사대상 성인 집단 비율

다음으로 연구유형별 조사대상 청소년 연령 집단 결과는 <표 III-22>와 같다. 내부과제의 경우, 전기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약 56% 정도이고, 전기와 후기청소년 집단을 통합한 연구가 약 41%로 나타났다. 반면, 외부과제의 경우 조사대상 청소년 연령 집단이 전기청소년과 후기청소년 집단이 거의 유사하였다. 내부과제와 외부과제 모두 후기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과제에 비해 외부과제 중에서 차지하는 후기청소년 대상 연구가 약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내부과제와 외부과제 모두, 전기청소년 집단 중에서는 중학생+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전기와 후기청소년을 통합한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포괄하는 연구과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I-22 연구유형별 조사대상 청소년 연령 집단

조사대상	내부과제	외부과제	조사대상	내부과제	외부과제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전기청소년	236 (55.8)	44 (48.9)	초	8(1.9)	2(2.2)
			중	33(7.8)	—
			고	31(7.3)	1(1.1)
			초+중	19(4.5)	13(14.4)
			중+고	96(22.7)	20(22.2)
			초+중+고	49(11.6)	8(8.9)
후기청소년	12(2.8)	7(7.8)	대	12(2.8)	7(7.8)
전기+후기청소년	175 (41.4)	39 (48.3)	중+고+대	14(3.3)	4(4.4)
			고+대	6(1.4)	3(3.3)
			초+중+고+대	155(36.6)	32(35.6)
전체 합계	423(100.0)	90(100.0)	전체합계	423(100.0)	90(100.0)



【그림 III-22】 연구유형별 조사대상 청소년 연령 집단

3) 연구주제별 동향 분석

여기에서는 연구과제를 연구주제별로 분류하여 주제별 동향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연구주제별 동향 분석은 2003년~2013년 연구과제에 한정하였다. 2절에서 살펴볼 연구과제 내용분석 역시 연구과제의 방대함으로 인해 1989년~2002년까지 발간된 연구보고서는 제외하고 2003년~2013년의 연구과제에 한정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연구주제별 동향 분석도 그에 따라 이 시기에 발간된 연구과제에 한정하여 이루어졌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1차 전문가 자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2013년에 발간된 연구보고서의 제목에 제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주제를 34개의 소주제로 분류하였고 2차 전문가 자문조사를 통해 34개의 소주제를 다시 17개의 중주제로, 이것을 다시 5개의 대주제로 분류하였다. 최종 분류된 연구주제는 다음 <표 III-23>과 같다. 표에 제시된 585건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동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I-23 연구과제의 주제별 분류

	중주제	대주제	과제수
1	가족 및 사회화	1.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	137
2	생활 및 의식		
3	다문화 사회		
4	환경(매체, 환경 일반, 정보화 등)		
5	학업(학교) 환경		
6	권리	2. 권리, 참여 및 시민성	76
7	참여		
8	시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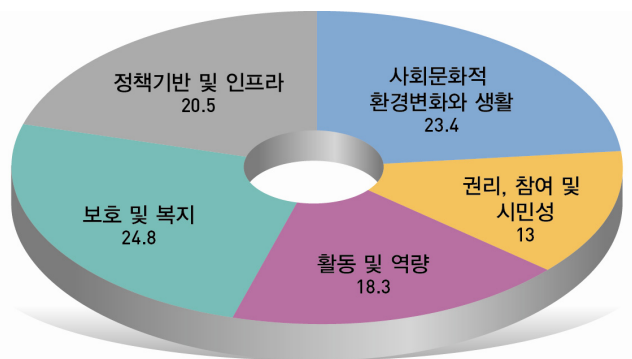
	중주제	대주제	과제수
9	활동	3. 활동 및 역량	107
10	역량		
11	보호	4. 보호 및 복지	145
12	복지		
13	시설, 단체	5. 정책 기반 및 인프라	120
14	정책 및 정책 기초		
15	법령, 제도		
16	청소년 지도 및 지도자		
17	통계, 지표, 패널		
전체			585

(1) 연구과제의 수와 유형

<표 III-24>에는 연구주제별 과제 수를 제시하였다. 지난 11년간 수행된 연구과제 중 보호 및 복지(24.8%),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23.4%), 정책기반 및 인프라(20.5%) 주제의 순서로 연구과제가 다수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활동 및 역량에 관한 연구주제는 18.3%였으며, 권리, 참여 및 시민성에 관한 주제는 13.0%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차제에 권리, 참여 및 시민성 관련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24 연구주제에 따른 과제 수

	빈도(과제 수)	백분율(%)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	137	23.4
권리, 참여 및 시민성	76	13.0
활동 및 역량	107	18.3
보호 및 복지	145	24.8
정책기반 및 인프라	120	20.5
합계	5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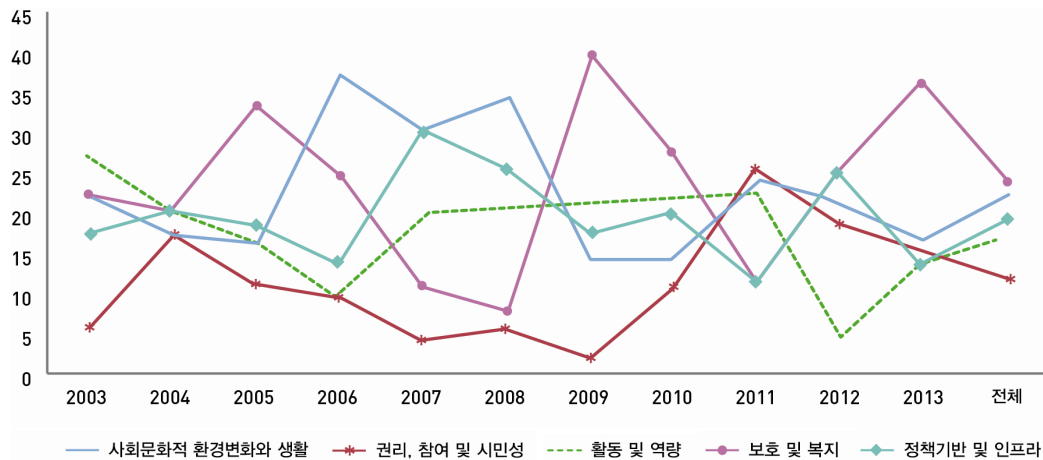
【그림 III-23】 연구주제별 연구과제 비율

한편 <표 III-25>에는 연도별 수행된 연구주제의 변화 추이를 제시하였다.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 주제는 주제 내부적으로 2006년과 2007년에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나 2006년에 수행된 과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권리, 참여 및 시민성 주제는 2011년에 가장 많이 수행되었고 2011년에 수행된 전체 연구주제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활동 및 역량 주제는 주제 내부적으로 볼 때는 2011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여타 주제와 비교했을 때 2003년에 수행된 전체 과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보호 및 복지 주제는 2009년에 가장 많은 과제가 수행되었고, 2009년에 수행된 연구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책기반 및 인프라 주제는 주제 내부적으로 볼 때 2012년에 가장 많은 과제가 수행되었지만 2007년에 수행된 연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III-25 연도별 연구주제 변화 추이

시기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		권리, 참여 및 시민성		활동 및 역량		보호 및 복지		정책기반 및 인프라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2003	10	23.3	3	7.0	12	27.9	10	23.3	8	18.6	43	100.0
2004	7	18.4	7	18.4	8	21.1	8	21.1	8	21.1	38	100.0
2005	7	17.1	5	12.2	7	17.1	14	34.1	8	19.5	41	100.0
2006	18	38.3	5	10.6	5	10.6	12	25.5	7	14.9	47	100.0
2007	18	31.0	3	5.2	12	20.7	7	12.1	18	31.0	58	100.0
2008	16	35.6	3	6.7	10	22.2	4	8.9	12	26.7	45	100.0

시기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		권리, 참여 및 시민성		활동 및 역량		보호 및 복지		정책기반 및 인프라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2009	9	15.3	2	3.4	13	22.0	24	40.7	11	18.6	59	100.0
2010	8	15.4	6	11.5	12	23.1	15	28.8	11	21.2	52	100.0
2011	16	25.0	17	26.6	15	23.4	8	12.5	8	12.5	64	100.0
2012	17	22.4	15	19.7	4	5.3	20	26.3	20	26.3	76	100.0
2013	11	17.7	10	16.1	9	14.5	23	37.1	9	14.5	62	100.0
전체	137	23.4	76	13.0	107	18.3	145	24.8	120	20.5	585	100.0



【그림 III-24】 연도별 연구주제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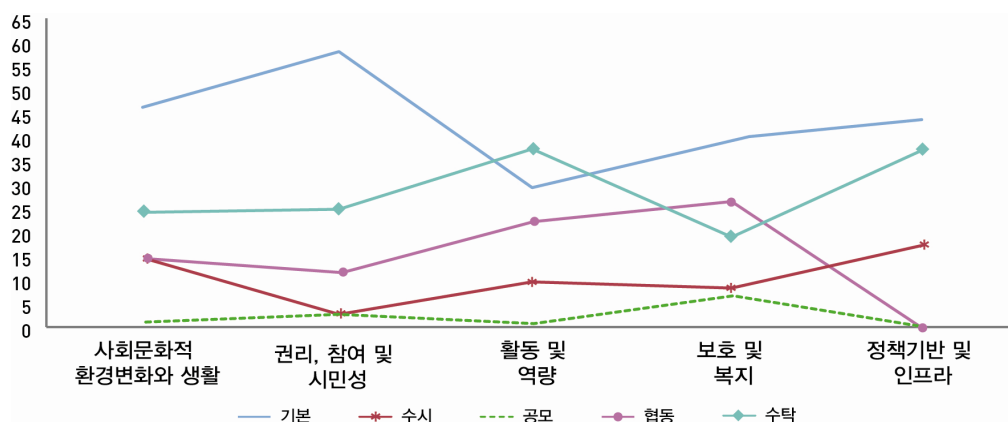
<표 III-26>에는 연구주제별 연구과제 유형을 제시하였다. 모든 연구주제에서 외부과제보다 내부과제가 더 많이 수행되었으나, 각 주제별로 내부과제와 외부과제의 비중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보호 및 복지 분야에서 내부과제의 비율이 80.7%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 권리, 참여 및 시민성 주제 역시 내부과제의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정책기반 및 인프라, 활동 및 역량 분야는 나머지 3개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과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주제별로 연구유형별 과제 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 분야와 권리, 참여 및 시민성 분야는 기본과제 비율이 각각 46.7%와 57.9%로 가장 높았고, 활동 및 역량 분야는 수탁과제(37.4%)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기본과제(29.9%)와 협동과제

(22.4%)가 유사하게 수행되었다. 보호 및 복지 분야는 기본과제(39.3%)와 협동과제(26.2%)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정책기반 및 인프라 분야는 기본과제(44.2%)와 수탁과제(37.5%)가 전체 연구 중 80%를 차지하였다.

표 III -26 연구주제별 연구과제 유형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		권리, 참여 및 시민성		활동 및 역량		보호 및 복지		정책기반 및 인프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내부과제	104	75.9	57	75.0	67	62.6	117	80.7	75	62.5
외부과제	33	24.1	19	25.0	40	37.4	28	19.3	45	37.5
기본	64	46.7	44	57.9	32	29.9	57	39.3	53	44.2
수시	18	13.1	2	2.6	10	9.3	12	8.3	21	17.5
공모	2	1.5	2	2.6	1	0.9	10	6.9	1	0.8
협동	20	14.6	9	11.8	24	22.4	38	26.2	-	-
수탁	33	24.1	19	25.0	40	37.4	28	19.3	45	37.5
합계	137	100.0	76	100.0	107	100.0	145	100.0	120	100.0



【그림 III -25】 연구주제별 연구과제 유형

한편, 연구유형(내부과제 vs. 외부과제)별로 어떤 연구주제를 가장 많이 수행했는지 <표 III-22>에 제시된 중주제별 빈도를 연구유형별로 살펴보았다. <표 III-2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내부과제 중 가장 많이 수행된 연구주제는 복지 주제였으며, 그 다음이 보호, 생활 및 의식 주제가 그 다음으로 많이 수행되었으며, 역량과 활동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외부과제의 경우, 활동 주제가 가장 많았고 시설 및 단체가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내부과제와 마찬가지로 외부과제에서도

복지에 관한 주제가 3순위로 많이 수행되었다. 다음으로 생활 및 의식, 참여의 순서로 연구과제가 많이 수행되었다. 내부과제와 외부과제간 수행된 연구주제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외부과제의 경우 4순위까지의 연구주제가 전체 외부과제 중 대략 55% 정도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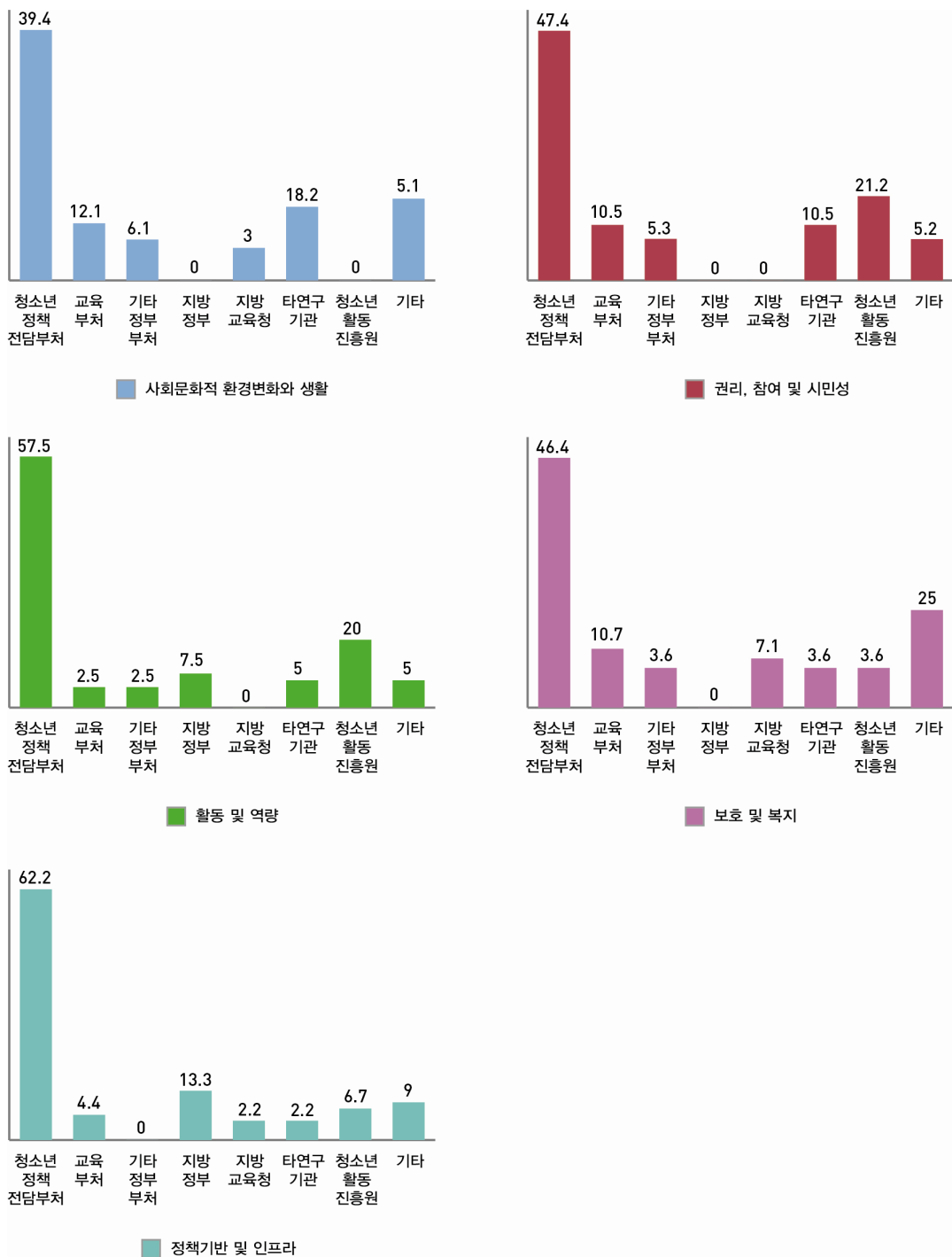
표 III-27 연구유형별 연구주제 1~5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내부과제	복지(14.3%)	보호(13.6%)	생활 및 의식(10.0%)	역량(8.1%)	활동(7.9%)
외부과제	활동(22.4%)	시설 및 단체(13.3%)	복지(10.3%)	생활 및 의식(9.1%)	참여(7.3)

<표 III-28>에는 연구주제별 수탁과제만을 선별하여 발주처를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주제 전체적으로 청소년정책 전담부처의 수탁과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순위 기관들이 연구주제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 분야에서는 타연구기관의 연구과제가 2순위로 많았고, 권리, 참여 및 시민성 분야와 활동 및 역량 분야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원의 연구과제가 2순위로 많았다. 보호 및 복지 분야는 기타 기관이, 정책기반 및 인프라의 경우 지방정부의 연구과제가 2순위로 많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나 연구주제별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8 연구주제별 수탁과제 발주처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		권리, 참여 및 시민성		활동 및 역량		보호 및 복지		정책기반 및 인프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청소년정책전담부처	13	39.4	9	47.4	23	57.5	13	46.4	28	62.2
교육부처	4	12.1	2	10.5	1	2.5	3	10.7	2	4.4
기타 정부부처	2	6.1	1	5.3	1	2.5	1	3.6	-	-
지방정부	-	-	-	-	3	7.5	-	-	6	13.3
지방교육청	1	3.0	-	-	-	-	2	7.1	1	2.2
타연구기관	6	18.2	2	10.5	2	5.0	1	3.6	1	2.2
청소년활동진흥원	-	-	4	21.2	8	20.0	1	3.6	3	6.7
기타	7	5.1	1	5.2	2	5.0	7	25.0	4	9.0
합계	33	100.0	19	100.0	40	100.0	28	100.0	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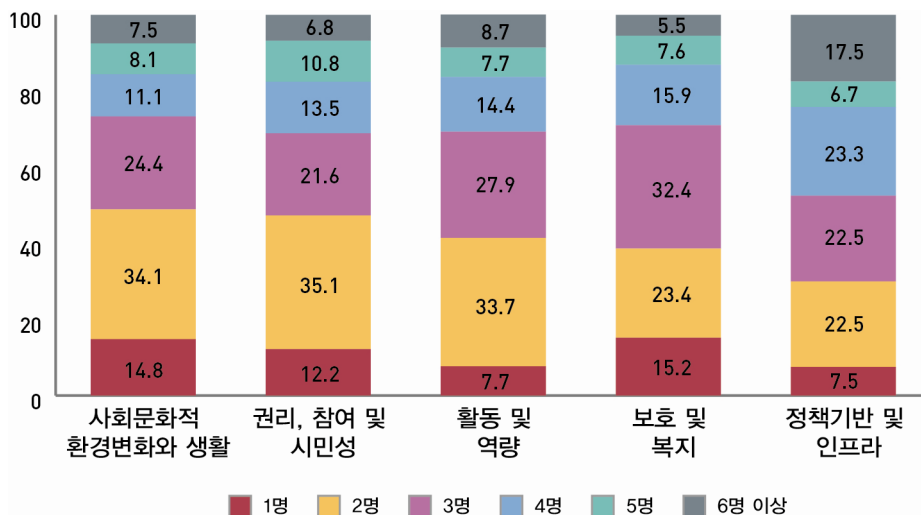
【그림 III-26】 연구주제별 수탁과제 발주처

(2) 연구참여자

<표 III-29>에는 연구주제별 연구참여자 수를 제시하였다. 정책기반 및 인프라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분야에서는 주로 2명 또는 3명의 연구참여자들이 연구를 수행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정책기반 및 인프라의 경우에는 2명, 3명, 4명의 연구참여자가 유사한 비율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연구주제별 연구참여자 수

연구참여자 수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	권리, 참여 및 시민성	활동 및 역량	보호 및 복지	정책기반 및 인프라
1	20(14.8)	9(12.2)	8(7.7)	22(15.2)	9(7.5)
2	46(34.1)	26(35.1)	35(33.7)	34(23.4)	27(22.5)
3	33(24.4)	16(21.6)	29(27.9)	47(32.4)	27(22.5)
4	15(11.1)	10(13.5)	15(14.4)	23(15.9)	28(23.3)
5	11(8.1)	8(10.8)	8(7.7)	11(7.6)	8(6.7)
6명 이상	10(7.5)	5(6.8)	9(8.7)	8(5.5)	21(17.5)
합계	135(100.0)	74(100.0)	104(100.0)	145(100.0)	12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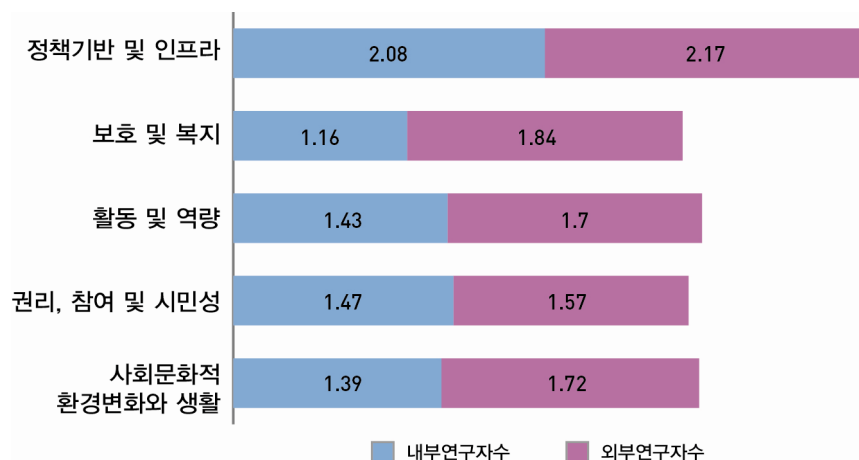


【그림 III-27】 연구주제별 연구참여자 수

한편 <표 III-30>에는 연구주제별 연구과제당 평균 연구참여자 수를 제시하였다. 정책기반 및 인프라 영역의 평균 연구참여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연구주제 영역에서의 평균 연구참여자 수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0 연구주제별 연구과제 당 평균 내부연구자 수 vs. 외부연구자 수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		권리, 참여 및 시민성		활동 및 역량		보호 및 복지		정책기반 및 인프라		전체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빈도
내부 연구자수	1.39	44.7	1.47	48.4	1.43	45.7	1.16	38.7	2.08	48.9	1.49	45.0
외부 연구자수	1.72	55.3	1.57	51.6	1.70	54.3	1.84	61.3	2.17	51.1	1.82	55.0
전체 연구자수	3.11	100.0	3.04	100.0	3.13	100.0	3.00	100.0	4.25	100.0	3.31	100.0



【그림 III-28】 연구주제별 연구과제 당 평균 내부연구자 수 vs. 외부연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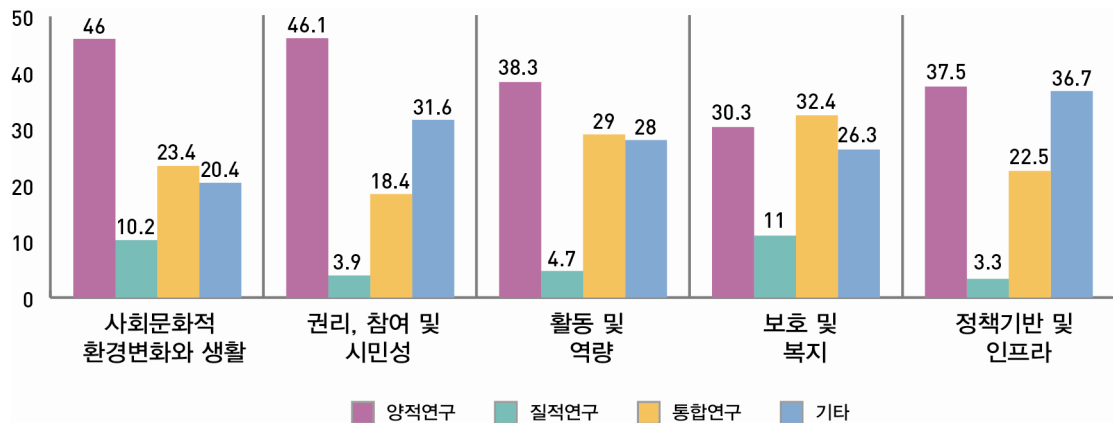
(3) 연구방법

연구주제별로 활용한 연구방법 분석 결과는 <표 III-31>과 같다.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 권리, 참여 및 시민성 분야와 활동 및 역량 분야는 양적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 반면, 보호 및 복지 분야는 통합연구방법이 32.4%로 가장 많았으며, 정책기반 및 인프라

분야는 양적연구방법이 37.5%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기타 방법도 3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기반 및 인프라 분야에서 기타 방법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법령과 제도, 청소년시설과 단체 관련 연구가 포함되어 있어 평가와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법이 적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II-31 연구주제별 연구방법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		권리, 참여 및 시민성		활동 및 역량		보호 및 복지		정책기반 및 인프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양적연구	63	46.0	35	46.1	41	38.3	44	30.3	45	37.5
질적연구	14	10.2	3	3.9	5	4.7	16	11.0	4	3.3
통합연구	32	23.4	14	18.4	31	29.0	47	32.4	27	22.5
기타	28	20.4	24	31.6	30	28.0	38	26.3	44	36.7
합계	137	100.00	76	100.0	107	100.0	145	100.0	120	100.0



【그림 III-29】 연구주제별 연구방법

(4) 조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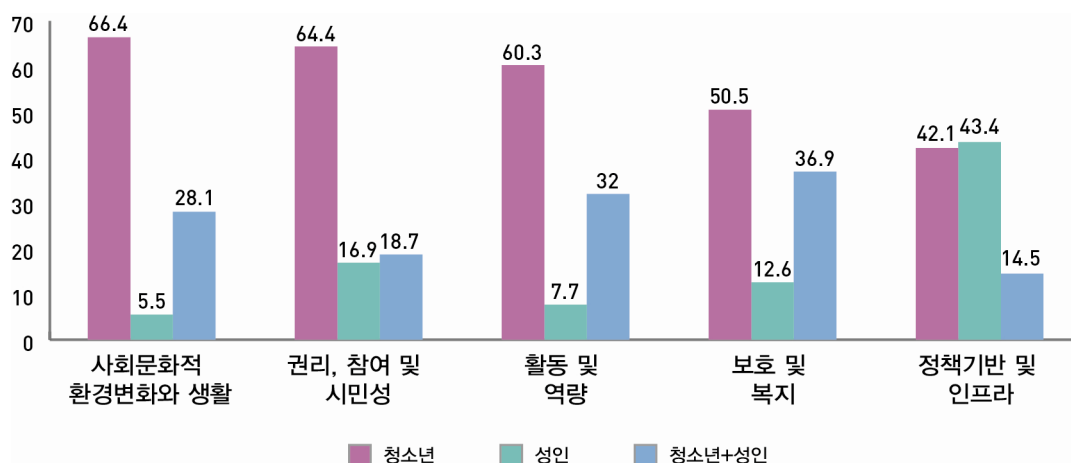
<표 III-32>에는 연구주제별 조사대상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책기반 및 인프라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주제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연구주제의 특성상 아동·청소년 및 가족을 함께 조사대상으로 포함하는 보호 및 복지 분야에서는 청소년+성인을 포함한 통합 연구과제도 36.9%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 다음으로 그 수가 많았다. 정책기반 및 인프라에서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2~43%대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III-33>에는 성인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는 연구과제를 선별하여, 조사대상 성인 내부 집단을 제시한 것이다. 권리, 참여 및 시민성, 활동 및 역량, 정책기반 및 인프라 분야에서는 전체 연구과제 중 50% 이상이 관련전문가를 조사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예외적으로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 분야에서는 성인 집단 중 2개 집단 이상을 통합한 경우가 35.2%로 가장 많았다.

표 III-32 연구주제별 조사대상

조사대상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		권리, 참여 및 시민성		활동 및 역량		보호 및 복지		정책기반 및 인프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청소년	73	66.4	38	64.4	47	60.3	56	50.5	32	42.1
성인	6	5.5	10	16.9	6	7.7	14	12.6	33	43.4
청소년+성인	31	28.1	11	18.7	25	32.0	41	36.9	11	14.5
합계	110	100.0	59	100.0	78	100.0	111	100.0	76	100.0



【그림 III-30】 연구주제별 조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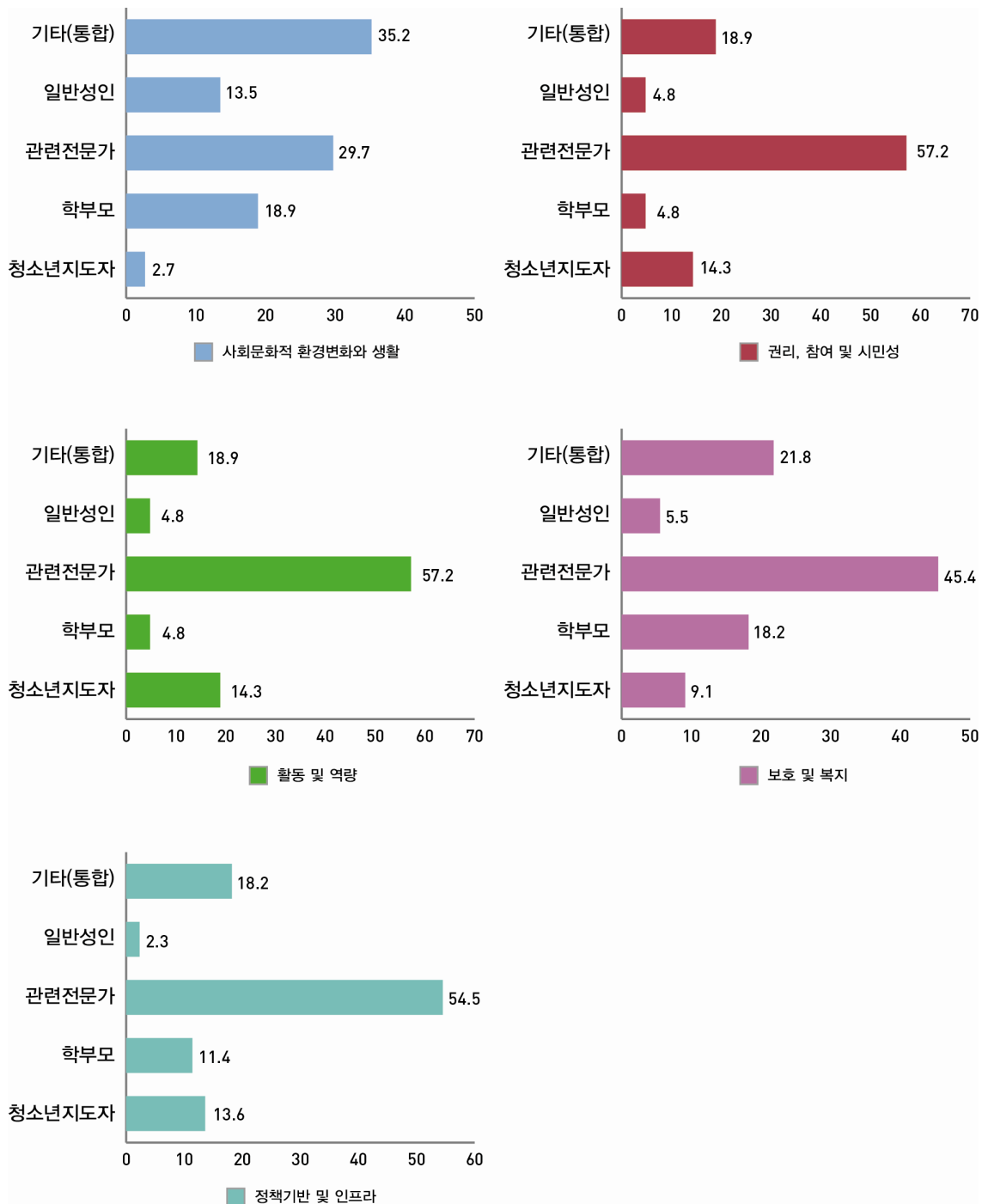
표 III-33 연구주제별 조사대상 성인 집단

조사대상 성인 집단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		권리, 참여 및 시민성		활동 및 역량		보호 및 복지		정책기반 및 인프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청소년지도자	1	2.7	3	14.3	3	14.3	5	9.1	6	13.6
학부모	7	18.9	1	4.8	1	4.8	10	18.2	5	11.4
관련전문가	11	29.7	12	57.2	12	57.2	25	45.4	24	54.5
일반성인	5	13.5	1	4.8	1	4.8	3	5.5	1	2.3
기타(통합)	13	35.2	4	18.9	4	18.9	12	21.8	8	18.2
합계	37	100.0	21	100.0	21	100.0	55	100.0	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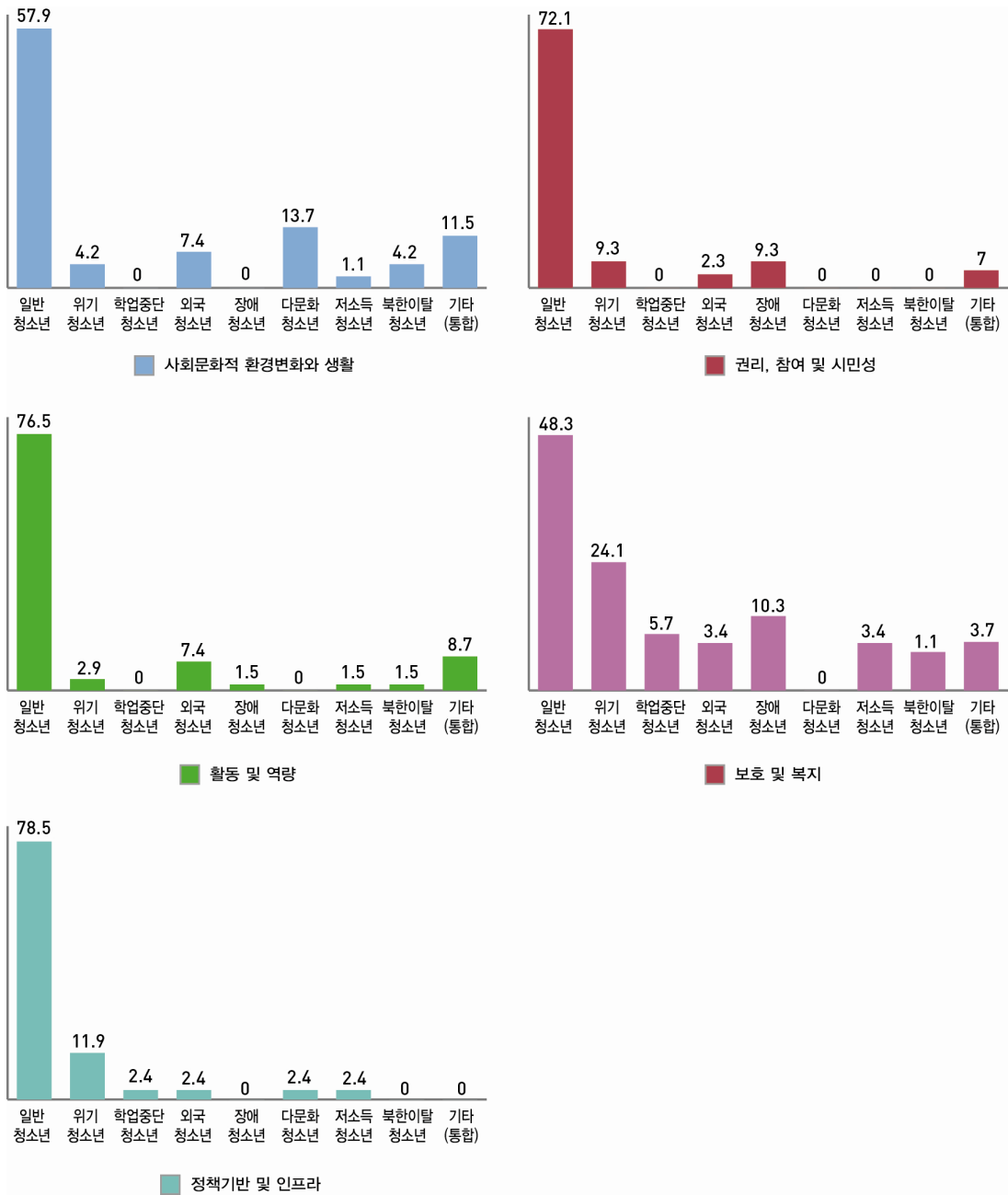
<표 III-34>에서는 연구주제별 조사대상 청소년 내부 집단을 제시하였다. 권리, 참여 및 시민성, 활동 및 역량, 정책기반 및 인프라 영역에서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보호 및 복지 영역에서는 영역의 특성상 위기청소년과 장애청소년 등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 영역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2개 이상의 청소년 집단을 통합한 연구가 비교적 많았다.

표 III-34 연구주제별 조사대상 청소년 집단

조사대상 청소년 집단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		권리, 참여 및 시민성		활동 및 역량		보호 및 복지		정책기반 및 인프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일반청소년	55	57.9	31	72.1	52	76.5	42	48.3	33	78.5
위기청소년	4	4.2	4	9.3	2	2.9	21	24.1	5	11.9
학업중단청소년	-	-	-	-	-	-	5	5.7	1	2.4
외국청소년	7	7.4	1	2.3	5	7.4	3	3.4	1	2.4
장애청소년	-	-	4	9.3	1	1.5	9	10.3	-	-
다문화청소년	13	13.7	-	-	-	-	-	-	1	2.4
저소득청소년	1	1.1	-	-	1	1.5	3	3.4	1	2.4
북한이탈청소년	4	4.2	-	-	1	1.5	1	1.1	-	-
기타(통합)	11	11.5	3	7.0	6	8.7	3	3.7	-	-
합계	95	100	43	100	68	100	87	100	42	100



【그림 III -31】 연구주제별 조사대상 성인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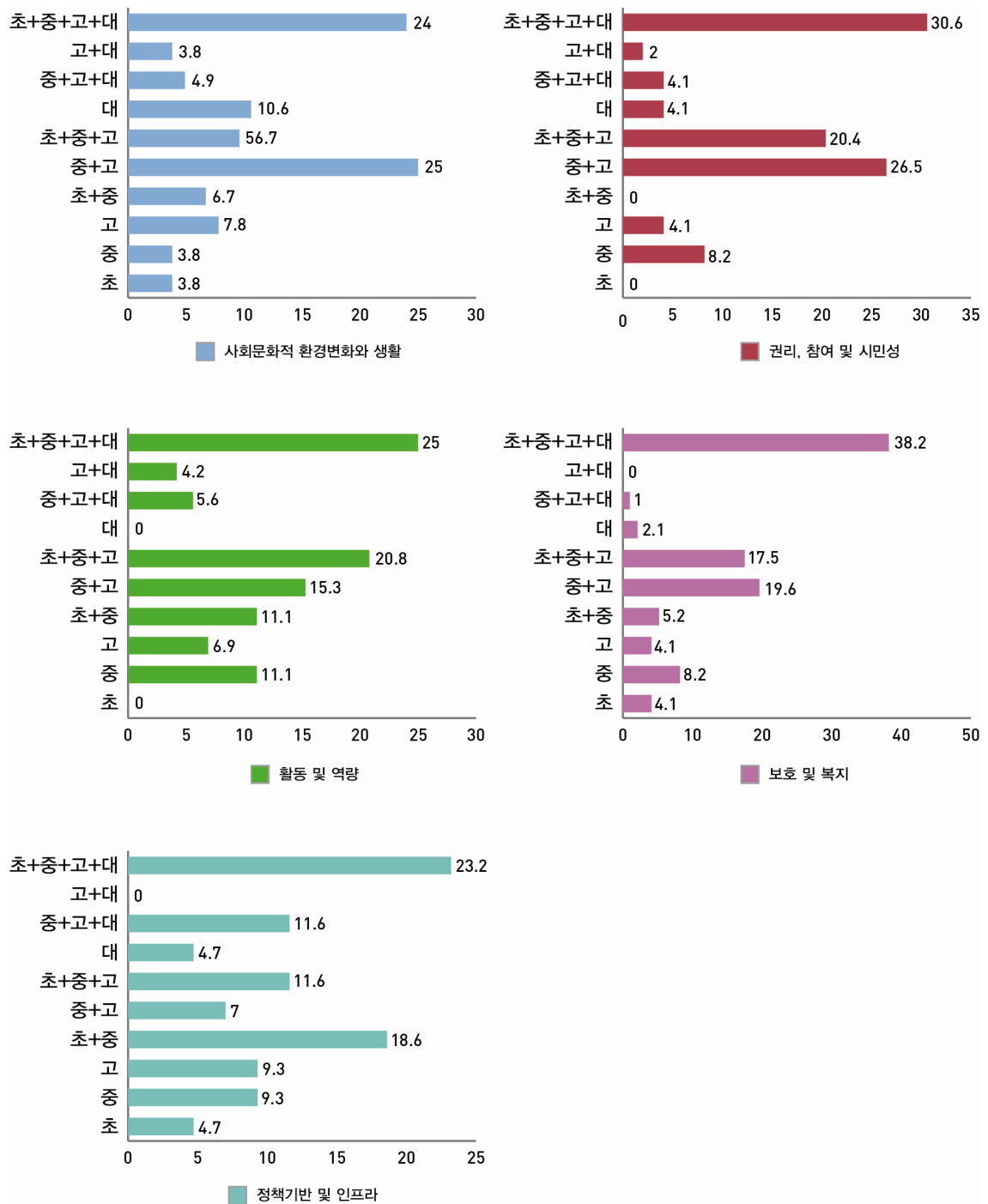


【그림 III-32】 연구주제별 조사대상 청소년 집단

<표 III-35>에는 연구주제별 조사대상 청소년 연령 집단을 제시하였다.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 영역에서는 중고등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와 전기와 후기청소년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포함한 연구가 24~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영역에 비해 이 영역에서 대학생도 포함한 후기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나머지 4개 영역 모두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2순위 조사대상 청소년 연령 집단에서는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권리, 참여 및 시민성 영역에서는 중고등학생을, 활동 및 역량 영역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을, 보호 및 복지 영역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마지막으로 정책기반 및 인프라 영역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가 2순위로 많았다.

표 III-35 연구주제별 조사대상 청소년 연령 집단

조사대상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		권리, 참여 및 시민성		활동 및 역량		보호 및 복지		정책기반 및 인프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기 청소년	초	4	3.8	-	-	-	-	4	4.1	2	4.7
	중	4	3.8	4	8.2	8	11.1	8	8.2	4	9.3
	고	8	7.8	2	4.1	5	6.9	4	4.1	4	9.3
	초+중	7	6.7	-	-	8	11.1	5	5.2	8	18.6
	중+고	26	25.0	13	26.5	11	15.3	19	19.6	3	7.0
	초+중+고	10	9.6	10	20.4	15	20.8	17	17.5	5	11.6
	(합계)	49	56.7	29	59.2	32	65.2	40	58.7	21	60.5
후기 청소년	대	11	10.6	2	4.1	-	-	2	2.1	2	4.7
전기+ 후기 청소년	중+고+대	5	4.9	2	4.1	4	5.6	1	1.0	5	11.6
	고+대	4	3.8	1	2.0	3	4.2	-	-	-	-
	초+중+고+대	25	24.0	15	30.6	18	25.0	37	38.2	10	23.2
	(합계)	20	32.7	5	36.7	7	34.8	38	39.2	15	34.8
전체 합계		104	100	49	100	72	100	97	100	43	100



【그림 III-33】 연구주제별 조사대상 청소년 연령 집단

2. 연구과제 내용 분석

이 절에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내용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2013년에 수행되었던 연구과제를 5개의 대주제별로 나누어 과제의 구체적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이 작업은 향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해야 할 미래과제를 발굴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자 개인이 몇 개의 과제에 참여하였고 주로 수행한 연구는 어떤 연구과제인지 그 주제를 살펴본다. 본원의 연구과제 방침 상, 모든 연구자는 1개의 기본과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개인 연구자가 참여한 기본과제 수 대신 수탁과제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개인이 참여한 연구과제의 주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별 수행 연구과제 수와 연구주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과제 수행의 전문성을 대내외적으로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3년간 수행되었던 기본과제와 수시과제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 제언을 분석한다. 국가 청소년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제안된 정책 내용이 적절하게 개발된 것이며 현장을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 모든 과정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는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정책 제언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향후 청소년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주제별 내용 분석

(1)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와 생활⁵⁾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와 생활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이 주제는 다른 주제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연구되는 비중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호 및 복지 분야와 더불어 다른 주제보다 많이 연구되었다.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와 생활에

5) 이 부분은 본 연구 과정 중에 실시했던 정책워크숍에서 조아미 교수(명지대)가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포함된 5개 소주제별로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족 및 사회화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와 생활 범주 중에서 ‘가족 및 사회화’주제는 청소년과 청소년정책 연구에서의 기초연구에 해당하는 주제로 볼 수 있다.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이나, 제4차 및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지는 않았으나,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를 포함하고 있고,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킨 바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가족 및 사회화 분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전체 연구 중 절반 이상이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국제비교연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가족구조의 변화 흐름을 고려할 때, 가족 및 사회화 주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연구내용과 범위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생활 및 의식

생활 및 의식은 가족 및 사회화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과 청소년정책 수립에 필요한 중요한 기초연구라고 할 수 있다. 생활 및 의식 주제는 2010년을 전후하여 많이 연구된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다른 분야보다 지속적으로 연구된 분야이기도 하다. 연구된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생활소비, 생활실태, 가치관, 생활의식, 생활시간, 생활습관, 세대특성, 국가관 및 안보의식, 생활패턴, 양성평등 의식, 세대간 의식구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등 다양하였다. 특히 같은 생활의식이나 실태라고 해도 대상을 달리하여 연구한 결과, 전체 청소년뿐만 아니라 후기 청소년, 청소년 성소수자, 조기유학 청소년, 소년원생 등 다양한 하위집단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조사대상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다문화 사회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서는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 강화’나 ‘탈북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안하지는 않았다.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부터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연구의 경우 그 수는 적지만 비교적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특히 청소년정책기본계획보다 앞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다문화 관련 청소년정책 과제를 선도적으로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④ 환경(매체, 환경 일반, 정보화 등)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와 생활에 속한 여타 연구주제에 비해 환경 주제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환경 분야의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매체나 정보화와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최근 10년 간 우리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가 매체를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체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외에도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매체나 정보화 외에 환경에 관련된 연구는 거주지 환경,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순응도,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등 소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주제로 한 연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⑤ 학업(학교)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와 생활 범주에서 학업(학교) 환경이라는 하위주제는 가장 적게 연구된 분야이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다른 주제보다는 이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지 않고 있다. 하지만 향후 청소년 분야의 정책과제나 사업이 학교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6년 학업(학교) 환경과 관련된 연구를 처음 실시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학교폭력 대책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 방안 수립에 관한 것이었다. 그 이후 청소년의 사교육, 학교안전지표 개발, 대안교육 활성화,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학교규칙관련 연구 등 학업(학교) 환경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이라는 대주제에 속한 5가지 주제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를 분석해 보았다. 끝으로 향후 이 분야의 향후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가족과 관련된 주제이다. 가족 및 사회화는 그리 많이 연구되는 주제가 아니며, 그 중에서도 가족에 관한

주제는 특히 그렇다. 가족 및 사회화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이 사회화와 관련된 것이므로 가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다른 이유는 청소년을 이해하고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토대 또는 기초자료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다양한 가족유형과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학업(학교) 환경에 관한 연구이다. 가족과 마찬가지로 학교(학업) 환경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청소년 분야는 학교와 협력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학교(학업) 환경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학교와의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청소년 친화적 환경에 관한 연구이다. 이제까지는 청소년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등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이보다는 제4차,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처럼 이제는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권리, 참여 및 시민성⁶⁾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했던 권리, 참여, 시민성에 관한 연구과제는 한국의 현대사와 민주주의의 성숙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일례로 청소년의 권리, 참여 및 시민성에 관한 주제는 한국의 제도적 민주주의의 성숙과 시민사회의 발전과도 관계가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촉발로 1990년대에 접어들며 소위 ‘시민운동의 중흥기’를 맞게 되었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시민운동이 다양한 의제로 분화되기 시작했으며(조철민, 2013), 시민운동과 민주주의의 성숙은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배경과 개인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시민운동과 시민사회의 성숙은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과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청소년의 권리가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고 청소년의 참여와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청소년을 의존적이고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던 시각에서 탈피하여 청소년을 보다 능동적

6) 이 부분은 본 연구 과정 중에 실시했던 정책워크숍에서 박선영 교수(한국체육대학교)가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인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권리와 참여는 시민교육의 주요 요소인데 권리와 참여에 대한 논의가 한국사회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도 시민교육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즉 한국의 시민교육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후반으로 볼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시민교육은 2000년대가 지나서야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Park, 2006). 그러므로 권리, 참여 및 시민성 관련 주제는 청소년정책연구 중에서도 2000년대 이후에 조명을 받게 된 비교적 신생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권리, 참여 및 인권에 관한 연구는 주기별 한국청소년정책의 주요 정책의제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2003년부터 실시된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은 처음으로 청소년육성 5대 정책과제로 청소년의 권리 신장 및 자발적 참여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된 권리와 참여 관련 연구도 3차청소년육성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민권 증진과 권리, 인권 등에 관한 주제로 수행되었다. 특히 이 시기 청소년참여 기구에 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청소년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부터 실시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제3차 정책에서 논의된 권리와 참여에 관한 정책의제가 보다 심화 발전되어 시민역량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었다.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를 바탕으로 건강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안들이 청소년정책에서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2008년 이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주제는 인권과 시민의식 관련 국제비교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논의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다음에서는 권리, 참여, 시민성 소주제별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분석해 본다.

① 권리

권리가 포함된 연구 주제들의 특징 중 첫 번째는 시민권 증진에 관한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2003년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최원기 외)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 드러난 청소년의 역동적 참여를 배경으로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보다 근본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시민권을 다루었다. 시민권은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도 필요한 기본 조건이지만,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부여받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3년 청소년의 시민권을 사회적 참여를 위한 조건으로 다룬 것은 시민권을 사회적인 권리로만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부분적 시민권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시민권에는 개인적·사회적 권리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Park, 2007). 그러므로 시민권에 대한 접근은 사회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복지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적 권리로도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의 개인적 차원에서 시민권 증진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두 번째 연구의 특징은, 권리에 대한 연구가 인권(2005년과 2011년 이후의 인권 실태조사),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노동권(『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소년보호시설의 인권(『소년보호시설 인권 상황 관련 의식조사』)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연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4대 권리 중 발달권은 인권실태조사 연구에서 홀수년도에는 생존권·보호권, 짝수년도에는 발달권·참여권으로 구분하여 조사되고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아동인권진전상황보고서 작성을 위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태조사 이외에도 4대 권리에 대한 개별적인 증진방안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② 참여

참여에 관한 연구의 특징은 첫째, 청소년과 관련된 참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정책에의 참여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청소년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더라도 사회의 현안과 부조리 및 문제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권리 증진을 위한 옹호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참여와 관련한 연구는 청소년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직·간접 참여에 관한 영역으로 그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참여에 관한 연구의 특징은 참여활성화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제도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소년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완이나 개편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청소년이 속한 지역사회, 즉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연구와 이것이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대표적인 사회참여활동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연구를 모두 참여에 관한 연구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회참여에

대한 정의와 자원봉사에 대한 정의가 청소년참여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은 또 다른 식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③ 시민성

시민성 자체에 대한 연구는 세계시민 또는 글로벌 시민성에 관한 연구, 글로벌 역량강화 차원에서의 세계시민, 국제 시민성비교연구로 나뉜다. 그러나 시민성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은 청소년이 속해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시민성과 시민의식,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청소년은 한국의 시민이자 세계시민 또는 글로벌 시민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자질 및 역할, 역량 등에 관한 연구가 제외되어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며, 향후 시민성 관련한 연구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주제이다. 다만 시민성에 관한 논의가 편협한 자국민 우월주의나 다문화배척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성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는 국제비교연구이다. 즉, 한국 청소년의 시민성 수준을 측정하고 한국적 맥락에서의 시민의 개념을 정리하고 제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제비교연구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고, 시민성과 관련한 국제지표개발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2003~2013년 동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연구과제들 중 권리, 참여 및 시민성에 관련한 연구내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간의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연구주제들 중에서 가장 적은 분량의 연구과제가 이루어졌지만, 한국사회의 변화와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성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세계시민성과 같은 시대를 앞서가는 연구가 이루어졌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관련 연구주제가 갖는 의의가 있다. 앞으로는 청소년의 권리, 참여 및 시민성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조사대상과 연구방법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전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각각의 연구를 통해 제안된 정책제언들이 얼마나 현실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무수히 제안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또 다른 10년이 보다 발전적이고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권리, 참여 및 시민성에 관한 연구의 정책제언들이 얼마나 실현되었고 가시화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컨대

영국은 정책 수립 시 참고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미리 제공하고 관련 부처(Strategy Unit)에서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실제 실천한 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예산을 조정하고 관련 정책을 평가한다(House of Commons, 2007). 향후 연구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청소년 정책들이 정책과 제도, 관련 법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필요한 정책제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처간 예산 중복과 정책 중복 같은 불필요한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소년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셋째, 권리, 참여 및 시민성에 관한 연구의 철학적 바탕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정치 및 사회제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민주주의 개념과 시민사회의 개념들을 학교 사회과에서 배우는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경험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과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방법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수준을 넘어 청소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구의회와 시의회, 더 나아가 국회에서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과 관련된 주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에 청소년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극적 권리와 참여가 아닌 적극적 권리와 참여가 가능한 방법에 대한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3) 활동 및 역량⁷⁾

‘활동 및 역량’이라는 용어 사용은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도 관련이 있는데,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서는 ‘활동’을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있으며,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목표로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제시하였으나 정책과제로는 ‘청소년 활동 기반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 이후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에서는 ‘활동’개념이 삭제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역량’개념이 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청소년 ‘활동’용어 사용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도입되기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연구(2010년)에서는 ‘청소년활동’보다 ‘청소년 체험활

7) 이 부분은 본 연구 과정 중에 실시했던 정책워크숍에서 진은설 외래교수(중앙대학교)가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등'이 더 적합한 용어임을 제안한 바 있다.⁸⁾ 여기에서는 활동 및 역량 관련 연구에서 두드러지는 몇 가지 경향을 중심으로 연구과제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체험/문화 활동 관련

2004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면서 청소년활동 현장에서도 주5일 대비 청소년의 체험학습 및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사회적 인프라(시설과 프로그램 및 지도자)의 부족과 관련기관 간 연계체계가 미흡하여 청소년활동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시기에는 기존 특성화 수련거리의 개발을 비롯한 장애청소년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근로 청소년 등)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국내에서 단기간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저비용여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여행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또한 독서활성화종합대책연구,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문화컨텐츠 창작역량을 위한 연구 등 기존에 활발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의 세부추진과제와 관련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한편 2003년에 선진국형 청소년수련프로그램 개발연구에서 제안한 프로그램들(에딘버러포상 제도, 활동인증제, 특별회의, 청소년박람회, 청소년주간 등)이 현재 여성가족부의 정책으로서 수행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도부터 시작된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1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이 도입되면서 청소년 현장과의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운영모형개발, 청소년활동정책과의 연계방안 연구,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 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②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들의 교류활동에 관한 연구는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이 수립된 2003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의 세부추진과제에 따르면, 도농간 교류에서부터

8) 청소년활동을 '체험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청소년 활동의 범주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체험활동'은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교육활동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적인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청소년정책이 끊임없이 유지해 온 기초와도 일치한다.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념으로서도 청소년 활동보다는 청소년 체험활동이 더 적절하다. 청소년 체험활동은 청소년 수련활동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으로도 유용하며, 그간의 청소년 활동의 개념을 포섭하기에도 적절하다(김현철, 최창욱, 민경석, 2010).

남북청소년교류, 교포청소년들의 초청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수행된 연구들 중 교류에 관한 연구는 국내 지역 간 교류에 관한 것보다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청소년들의 현황과 생활실태에 대한 시리즈 형태의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최근 2013년에는 국제교류활동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 국가 간 유소년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정책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의 특별교류 10주년을 맞아 그 성과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에 관한 연구 등 국제교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③ 생애핵심역량개발 관련 연구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이전에는 ‘역량’에 대해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주요정책과제로서 ‘청소년핵심역량체계개발’이 설정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역량’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협동연구과제로 ‘청소년 핵심역량개발 및 추진방안’에 대한 16종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8년도에는 핵심역량개발 및 추진방안 첫 번째 연구로, 3가지 핵심역량 즉, 도구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에 대한 개념규정 및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로 총괄보고서까지 총 4종이 수행되었고, 2009년도에는 1가지 핵심역량인 사고력이 포함되어 총 5종의 연구로서 1차 년도에 개발된 척도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지표체계와 측정도구를 확정하고 전국규모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도에는 핵심역량에 대한 국내외 비교연구와 학교 및 수련시설 기반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개발 및 시범운영을 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총 7종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프로그램개발 및 시범운영은 3개의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생애핵심역량이라는 중요한 개념에 대한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개념 정의, 측정도구개발, 프로그램개발 및 적용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5대 정책과제 중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기존의 생애핵심역량과 학생역량, 인성역량 등의 제한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청소년역량지수’를 개발하여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등 총 5개 핵심 역량군에 16개의 하위역량의 구성체계를 마련하였다. 추후에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도 이러한 역량중심의 사업계획과 성과측정체계를 청소년활동현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④ 활동 및 역량 기반 구축: 인증제도 및 지표조사 관련

2003~2013년 동안 활동 및 역량 관련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성과는 청소년 활동 기반 또는 토대를 보강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를 다수 수행하였다. 우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도입(2006년) 이후 2009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증장기발전방안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그리고 2006년과 2007년에는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활동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율·참여 활동 지원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동아리활동의 인증방안 연구와 동아리활동 인증시범 운영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동안 청소년동아리활동은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활동이며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분을 형성하는 중요한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선행연구도 충분히 수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 시기의 청소년동아리활동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인증제도의 도입관련 연구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인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활동도가 높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되어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7~13세 아동·청소년을 위한 한국형 성취포상제 운영모형 개발과 전세계적으로 효과성 연구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 최초로 2회에 걸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효과성 연구가 수행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2009년에는 한국청소년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청소년지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재 상태와 변화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준거로서, 청소년정책수립의 방향설정과 청소년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지표개발 및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 상태와 변동추세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주며 청소년정책의 중·장기 목표수립 및 방향설정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단발적인 비정기조사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⑤ 진로 관련 활동

진로 및 직업 활동 역시 활동 및 역량 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다.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서의 ‘직업 및 진로교육’ 영역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복지지원 강화’ 정책의 세부추진과제로서 제시되었으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는 특정계층의 청소년

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내용 역시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로방향 및 가치 등 다양하다. 그 중, 학교교육정책, 청소년정책, 노동정책 등 3개 분야에서의 청소년 직업체험 활동을 조사한 연구는 그동안 각 부처별로 실시되었던 청소년 직업체험 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3개 부처의 정책이 지닌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진로실태(의식)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와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인식조사,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도 수행되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청소년들의 진로준비 관련 실태조사는 19~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동안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후기청소년들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진로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⑥ 방과후아카데미 관련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2005년부터 시행되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같은 해 ‘청소년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 연구’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매해 효과성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으나 2010년에는 연구가 누락되었고, 2011년 이후에는 연구가 중단되어 프로그램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 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고, 방과후 활동의 효과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주제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의 형태나 방법을 바꾸더라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주제의 연구결과는 청소년 활동 영역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이다. 특히 올해 사업시행 10주년을 맞아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그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사업의 추이를 분석하는 연구나 오늘날의 시점(혹은 미래 시점)에 필요한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활동 및 역량 주제에 관한 연구과제 내용 분석을 살펴보았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활동 및 역량 주제와 관련하여 향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세부과제 중 활동 및 역량에 관한 내용을 고루 반영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활동현장에서 필요한 과제임에도 특정주제에 대한 연구는 누락되기도 하였다. 국가 청소년정책이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세부 추진과제를 점검하거나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 제언에 대한 아이디어를 풍부히 할 필요가 있다. 활동 및 역량 주제의 연구과제들이 제안한 정책 제언들을 살펴보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 정책 제언은 실제 적용가능하고 타당해야 하지만 종종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제언이 제시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의 다양화, 관련센터 설치(혹은 청소년활동진흥원 내 설치), 법제도 정비 등을 한 세트로 제시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 정책 제언들을 다양하게 제안함으로써 현장의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청소년활동 현장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은 현장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정책 제언을 제시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셋째, 매년 청소년활동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06년과 2007년의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 연구’와 2009년 ‘한국청소년지표조사: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등 청소년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려면 우선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의 현황 및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실태조사가 단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이에 기존에 있는 청소년활동(제도)들 즉, 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방과후아카데미,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을 모두 포함한 ‘청소년활동조사’ 혹은 ‘청소년활동백서’ 형태의 출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그동안 수행된 청소년활동 및 역량 관련 연구과제들과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계에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많은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미래의 주요 사회이슈가 될 수 있는 청소년계의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향후 기능과 역할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며,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권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보호 및 복지⁹⁾

여기에서는 보호 및 복지 주제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3~2013년까지 수행했던 연구과제의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각 연구과제가 시기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해당 주요정책과제에 따른 세부정책과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① 보호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의 기간에 해당하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청소년 보호 및 복지 분야의 연구과제들은 청소년 복지 지원에 관한 연구보다 청소년 건강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와 관련한 과제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정책과제와 관련짓기 어려운 과제들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보호나 비행 등과 관련한 과제들이 이 시기에 수행된 과제들 중 60%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보호와 관련된 과제들 가운데 청소년 선도·보호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청소년 문제나 비행 등의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규모가 이후 시기의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의 규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표본의 크기가 표본의 대표성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구 결과의 대표성에 일정 부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4차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시기에는 보호 관련 연구가 복지 영역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수행되었다. 2013년의 경우 보호와 관련한 연구는 단 3개 과제이며, 여전히 문제 중심의 접근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복지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이 시행되었던 시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복지 관련 연구는 주로 소외계층 또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관련 연구가 다수를 이룬다. 제4차

9) 이 부분은 본 연구 과정 중에 실시했던 정책워크숍에서 유성렬 교수(백석대학교)가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기간 동안에는 보호 및 복지 영역에서 수행된 과제 중 약 83% 정도가 복지 증진에 관한 주제의 연구과제가 수행되었다. 이는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시기에 복지에 비해 보호 주제의 연구과제가 더 많이 수행되었던 점과 상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복지 영역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려운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지원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앞선 시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동일한 연구주제 아래 각기 다른 집단 혹은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9년에 이루어진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2012년에 이루어진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등은 동일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집단이나 여러 영역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각각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특정 주제에 대해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 걸쳐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앞선 경우와 유사한 형태로 수행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는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제한된 영역 혹은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연구 범위(scope)의 한계를 넘어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포괄적인 맥락에서 관련 현상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기간인 2013년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연구가 복지 주제에 관한 것으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시기의 연구 경향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 청소년 집단이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되고 있다.

제3차로부터 제5차에 이르기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호 및 복지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과제들에서 나타난 주된 특징은 첫째, 연구과제의 수에서 상당한 증가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역량이 향상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보호 및 복지 영역의 연구과제의 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들의 주요 연구 대상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보호 및 복지 영역의 연구들이 특정 위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와 비행 혹은 문제에 초점을 둔 보호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구 규모가 확대되었고 연구 대상의 규모 즉 분석 표본의 규모도 상당 수준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외연 확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연구 특성으로 인해 연구결과가 지니는 타당성과 신뢰성의 확보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호 및 복지 분야 연구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과 관련하여 첫째 기존의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서 나아가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의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청소년 정책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일반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보호 영역의 경우에도 특정 문제나 비행에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서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과제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과제의 발굴이 필요하다.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를 단순히 문제 혹은 비행에 대한 처방의 성격보다는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수행되는 연구는 청소년 보호 영역에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과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인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관련한 내용이나,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들의 진로 경험 등과 관련한 연구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5) 정책 기반 및 인프라¹⁰⁾

지난 2003~2013년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했던 청소년정책 기반 및 인프라 관련 연구를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0) 이 부분은 본 연구 과정 중에 실시했던 정책워크숍에서 전명기 본부장(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①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시기 관련 연구

2003년은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이 시행된 시기이다.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은 청소년 참여활동 및 청소년특별회의 등 참여 기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현재와 같은 청소년관련 법체계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시·도 및 시·군·구 전담기구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청소년정책의 중앙부처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출범하여 청소년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을 기대했으나 진로·자립 부문의 취약, 계층 대상 잔여적 접근,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환경 조성 미흡 등의 한계가 있어 아쉬운 성과에 그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학적인 청소년정책의 개발 및 사업추진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책의 진일보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연구로는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2007)을 꼽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미래사회 및 메가트렌드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미래사회 청소년 관련 변화에 대한 체계적, 과학적 예측 및 전망을 제시하고, 미래사회 환경에서의 청소년정책의 위치짓기(positioning)와 청소년정책의 비전을 모색하여 주요 서비스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거 10여년간 정책 동향 분석과 청소년정책 진단, 미래 트렌드 파악 및 방향 설정 등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준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시도로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가 되었고, 정책부서에서는 이를 토대로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수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②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시기 관련 연구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2007)에서는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새로운 정책의제를 도출하여 향후 신규 정책사업 개발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정책의 핵심적 가치로 청소년기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을 제시하고 기존의 덕목지향적인 추상적 청소년상(덕체지)에 관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영역 확대 및 주요 현안인 성인기 이행에 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 부족, 범부처 사업 연계 미약, 시범사업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청소년정책 확장 미흡,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확산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에는 미흡한 정책 실행상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2007) 등 청소년관련 지방 행정기능의 체계 정립 및 객관적 평가를 위한 연구가 시행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시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매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간의 청소년보호업무 협조체제 유지 및 기관장의 청소년 육성·보호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며, 지방자치단체 점검·평가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정책의 개선과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평가지표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노력을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 확립에 기여하고 정부 포상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수탁사업의 특성상 과업의 범위가 국한되어 『청소년보호종합대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시책 중심의 평가에 머문 한계가 있었다. 2009년에는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청소년정책이 독립된 국가정책 중 한 분야로 자리매김한 이후의 주요 정책의 흐름을 정리한 바 있다.

③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시기 관련 연구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12)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그동안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의 추진방향, 영역, 그리고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국내외 환경분석을 토대로 국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 추진 영역, 추진세부과제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본계획 연구를 보다 진일보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는 점과 과거와 달리 범부처가 함께 수행해야 할 과제, 관련부처가 함께해야 할 과제, 특정부처가 수행해야 할 과제 등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실행력을 높였다는 점을 눈여겨 볼 수 있다.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2013)는 2014년에도 수행되고 있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긍정적인지 않은 상황에서, 26년 후인 2040년까지의 우리 사회의 미래모습을 전망해 봄으로써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미리 대비해서 청소년이 행복한 미래사회를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 연구의 1차년도에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서 트렌드를 추출하여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 바 있고 2차년도인 2014년에는 1차년도 연구결과인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대한 청소년정책 비전과 과제를 전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과거-현재-미래의 트렌드 변화 분석과 함께 기존 청소년 정책 및 관련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청소년정책을 진단하고, 현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진단을 기반으로 미래의 청소년 정책 비전을 도출하여, 한국사회에서 적절한 청소년 위치를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④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관심영역은 아동·청소년의 생애 경험, 행동, 환경 등이다. 현재의 패널조사는 2010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었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실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패널조사¹¹⁾의 결과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술 연구 및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구축된 자료를 관련 학계, 연구기관과 현장의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패널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이제 설립 이후 4반세기가 넘는 연륜을 갖춘 명실상부한 청소년정책 연구의 중추기관이 되었다. 그간 주요 청소년정책의 개발과 계획 수립,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구체적 과제 수행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정책의 정립과 발전을 선도해왔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연구과제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분야 고유의 정책 프레임 개발 및 선도적 과제 발굴이다. 청소년이라는 존재 자체가 과거와 비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 ‘또 다른 청소년’이 되었다. 그에 비해 아직 청소년연구 분야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이해나 관점의 정리가 부족한 듯하다. 정책연구에 있어서도 타 분야의 정책 프레임과 다른 선명한 청소년정책의 기조나 체계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사회와 시대의 변화 트렌드에 부합하는 청소년 분야 고유의 정책 프레임을 정립하고 사회적 요구나 과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정책대상 집단별 정책우선순위 판단이나 후기청소년 대상 연구의 확대, 노동시장의 위축 및 고용 불안정성의 증대에 따른

11) 이와 관련하여, 정책워크숍의 토론자였던 이세용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패널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청소년 패널조사는 청소년 연구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고, 관련 연구자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종단연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교육, 복지, 아동 등 인접 분야에서의 종단연구를 촉진시킨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청소년 패널조사의 성공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향후 성과가 기대된다.”

후기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등에 대한 대안 모색도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 보편의 요구 확인 및 도구 개발이다.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조사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연구의 특성상 청소년에 대한 직접 조사나 전문가 집단 대상의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일반 시민들의 청소년 및 청소년 활동에 관심과 문제 인식, 그리고 이에 따른 일상의 요구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적 표준’에 상응하는 과제 발굴을 기대한다. 유엔이나 주요국가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련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한국 청소년정책과의 상관성, 정책과제의 발굴이나 실행방안의 구체화에서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 따라서 국제적 표준과 소통하는 체계를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현장 역량 제고를 위한 기여 확대이다. 청소년지도 현장에서 기대하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등의 과제,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NCS 등 청소년지도 현장의 당면 과제를 현장과 정책 당국의 소통 속에서 가시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정책과 현장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실천방안의 마련이나 정책화,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지원 방안의 마련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자별 과제수와 연구주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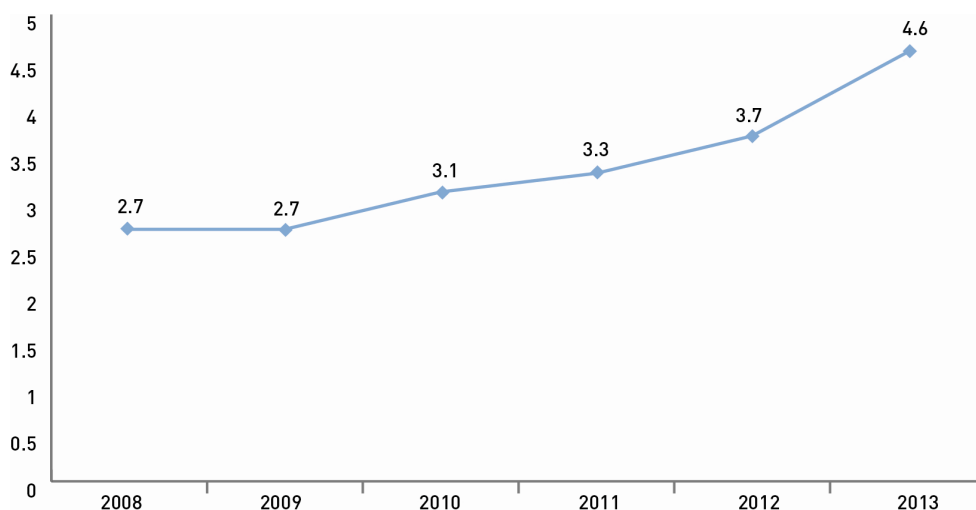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내부연구자 개인이 매해 평균 몇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주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개별 연구자가 처한 연구여건 및 연구과제를 통해 전문성을 개발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내부연구자들이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

본원의 개별 내부연구자가 수행한 평균 전체 과제수는 <표 III-36>과 같다. 우선 수탁과제 목록에 기초하여, 연구자별로 수행한 수탁과제 수를 정리하고 그 수를 매해 수탁과제에 참여한 전체 내부연구자 수로 나누어 연구자별 평균 수탁과제 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2008, 2009년에는 동일하게 연구자들이 평균 1.7개의 수탁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2년에는 평균 2.1~2.7개 수탁과제를 수행해 그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에는 전체 내부연구자가 참여한 개인별 수탁과제를 모두 합한 수는 114과제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연구자별 평균 수탁과제수는 3.6개로 더 증가하였다. 연구자별 평균 수탁과제수에 기본과제

1과제를 합쳐 연구자별 평균 전체 과제수를 도출하였다.

표 III-36 내부연구자별 평균 전체 과제수

구분 년도	전체 내부연구자 수	개인 참여 수탁과제 수 합	개인 수탁과제 최솟값~최댓값	연구자별 평균 수탁과제 수	연구자별 평균 전체 과제 수 (평균 수탁과제 수+기본과제 수)
2008	26	45	1~4	1.7	2.7
2009	28	48	1~3	1.7	2.7
2010	30	62	1~4	2.1	3.1
2011	31	71	1~5	2.3	3.3
2012	31	84	1~6	2.7	3.7
2013	32	114	1~8	3.6	4.6



【그림 III-34】 연구자별 평균 전체 과제 수 변화 추이

연구자별 평균 과제수가 2008년 2.7개에서 2013년 4.6개로 증가한 것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의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다만 연구자별 평균 전체 과제수가 4.6개로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이 수치를 통해 1년 평균 전체 과제수의 적정한 수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년 적정 과제수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있거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의 합의 같은 것이 존재하거나 혹은 타

연구기관의 평균 전체 과제수와 같은 비교 기준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준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가장 마지막 기준인 타 연구기관의 전체 과제수와 비교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본원의 전체 과제수와 타 연구기관의 전체 과제수를 맞비교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무리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연구기관마다 과제 수행의 여건이나 연구 성과가 반영되는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적정 과제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내부연구자별로 매년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주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개별 연구자들이 수행한 연구과제의 주제는 연구자들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5인을 무작위로 골라 그들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한 연구과제를 정리한 결과는 <표 III-37>과 같다.

표 III-37 내부연구자별 참여 연구과제명

연구자 년도	A	B	C	D	E
2008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초·중·고·대학생 의식구조 비교에 의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	한국 청소년 패널 조사 연구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방안 연구
2009	비행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 방안 연구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 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체제 구축방안 연구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 방안	아동·청소년의 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2010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가족 아동 지원방안 연구 I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연구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연구	-
2011	-	한국아동·청소년 통계데이터 아카이브 콘텐츠구축사업 II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방안 연구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 연구
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 도덕성 발달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II
201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I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 방안 연구	국가 청소년 활동 정책 체계화 연구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연구자 A의 경우, 2008년 과제를 제외하고 비행청소년, 저소득층 가족아동, 한부모가족 등 위기 또는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 관련 과제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연구주제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 연구자 B의 경우에는 2012~2013년의 연구과제의 연계성이 있는 편이며, 연구자 C의 경우 인권 관련 주제와 패널조사 연구와 같이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구자 D와 E의 경우 매년 다양한 연구주제를 섭렵한 경우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정책 연구과제의 범위와 성격이 다양한 데 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인력의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향후 연구과제 선정 절차와 과정에서 연구수행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중 연구주제의 중복성에 관한 문제를 지적해 볼 수 있다. <표 III-38>에 따르면 비슷한 주제의 연구가 연속적으로 수행되기도 하였고, 연구주제의 범주 수준도 상위 범주의 연구와 하위 범주의 연구가 혼재되어 있다. 물론 연구주제의 범주 수준이 반드시 동일하게 선정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연구과제의 범주 수준과 매해 수행된 연구과제들이 어느 정도 연계성과 체계성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매해 유사하면서도 연계된 연구과제가 선정된 듯 보이지만, 연구과제 선정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수행된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준다. 물론 유사한 연구주제가 수행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연구주제의 연구가 전년도와 어떻게 연결되고 전체 청소년 연구영역에서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어떤 영역을 메워주는 것인지가 드러나야 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주제 선정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설명도 가능하지만, 매해 수행되는 모든 연구가 지정주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되기는 어렵다. 만약 그렇다면 지정주제로 선정되는 것 외에 내부와 외부전문가들에 의해 제안된 연구과제에 한정해서라도 연구과제의 체계적, 장기적 주제의 발굴은 필요할 것이다. 상술한 연구주제의 유사성은 전체적으로 연구과제 선정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선정할 경우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38 연도별 연구과제명

주제	년도	연구 유형	연구과제명
복지	2006	기본	청소년 유형별 복지육구 실태와 지원방안
	2007	기본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2008	기본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2009	기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비교 및 발전방안 연구
	2009	기본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활동	2010	기본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 활동 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2011	기본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
	2010	기본	청소년 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2012	기본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2013	수시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연계 방안
	2012	수시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2011	수시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2013	기본	국가 청소년 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다음으로 앞서 전체 연구과제에 대한 동향 분석에서 외부연구자의 소속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표 III-9> 참조). 전체 외부연구자 중 약 70%가 학계 소속인 것으로 나타나, 공동연구원 선정 시 학계 의존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외부연구자 중 2003~2013년에 수행된 본원의 과제에 10번 이상 참여한 외부연구자를 분석한 결과 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명은 학계 소속이며, 1명은 청소년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 중 3명을 골라 참여했던 연구과제의 주제를 살펴보았다.

표 III-39 최빈 외부연구자 참여 연구과제명

구분	년도	연구과제명
A	200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05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 방향 연구
	2005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2005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2006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2007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 II - 청소년인권 영역별 실태분석

구분	년도	연구과제명
	2008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비교 및 발전방안 연구
	2009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2009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2011	수요자 중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201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B	2003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I : 청소년 소비생활 문제와 대책
	2004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2005	특별지원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지침서 개발 연구
	2006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2007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20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Ⅳ : 인터넷 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사고력 영역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고력
	201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C	2013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2005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및 학교부적응 관련 효과
	2006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 : 결과부분 측정 지표 검증
	2007	청소년 통계 혁신 방안
	2008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 연구 : 글로벌 일자리와 관련하여
	2009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생성을 위한 기초 연구
	2010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단연구 I
	2011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 중단연구 II
	2012	학업중단 학생 중단 정책연구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데이터 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201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외부연구자 A는 12과제에 참여해 가장 많은 과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가 참여한 과제는 인권, 복지영역에 주로 참여했는데, 2005년에는 3과제, 2009년과 2011년에는 각각 2과제에 참여하였다. 반면 외부연구자 B는 총 10과제에 참여하였는데, 연구과제의 주제가 매우 다양하다. 2012년을 제외하고 외부연구자 B는 꾸준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부연구자 C는 주로 패널조사, 지표조사 등 통계 관련 연구과제와 복지

영역에 주로 참여해왔다. A와 C의 경우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지속적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B의 경우와 같이, 한 외부전문가가 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에 모두 참여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지닌 외부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정책 제언에 대한 분석

여기에서는 최근 3년간 수행되었던 기본과제와 수시과제 보고서 72건에 제시된 정책 제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서 본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가 제시한 정책 방안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것이 청소년 현장을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기관의 역할과 위상과도 직결될 수 있다. 이는 앞서 연구과제 내용 분석에서 정책워크숍 발표자들이 본원의 향후 과제로 지적한 내용들이기도 하다.

우선 2011~2013년 동안 수행된 연구과제 중 72건의 보고서가 제안한 정책들을 법제 개편, 조직 및 인프라 구성, 기능 및 제도 추가 또는 보완, 프로그램 제안, 인력 확보와 역량 및 전문성 제고, 예산 확보, 기타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각 범주에 해당하는 정책을 제안한 연구과제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I-40>과 같다. 법제 개편을 제안한 과제는 24개, 조직 및 인프라 46개, 기능 및 제도 57개, 프로그램 제안 59개, 인력 32개, 예산 22개, 기타 4개 과제로 이 중, 프로그램과 기능 및 제도에 대한 정책 제언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40 정책 제언의 내용

	법제 개편	조직 및 인프라	기능 및 제도	프로그램 제안	인력	예산	기타
과제 수	24	46	57	59	32	22	4

상술한 7개 범주의 정책 제언들 중 72건의 연구과제들이 가장 많이 제안한 정책 방안 범주 개수를 살펴보았다. 연구과제 중 정책 제언 개수는 4개가 23과제로 가장 많았으며, 2개와 3개가 12~13과제로 유사했다. 1개의 정책을 제안하든, 6개의 정책을 제안하든 연구과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정책은 관련 프로그램 제안이었다. 그 다음으로 특정 제도 마련(기능 및 제도)이나 전담기관과 시설 설치 등 조직 및 인프라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표 III-41 정책 제언의 수와 종류

	과제 수 (72과제)	법제 개편	조직 및 인프라	기능 및 제도	프로그램 제안	인력	예산	기타
1개	9			①	①			
2개	13			②	①			
3개	12		③	①	①			
4개	23		②	③	①	④		
5개	9	⑤	①	①	①	④		
6개	6	①	①	①	①	①	①	

참고 : 원 안의 숫자는 정책제언 중 많이 제안된 순위

기실 정책 제언의 수와 그 종류만으로는 연구과제에서 제안한 정책 제언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연구자는 무작위로 5건의 연구보고서를 골라 각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 제언의 내용을 직접 살펴보았다. 분석에 포함된 과제는 <표 III-42>와 같다.

표 III-42 정책 제언 내용 분석 사례

	A 2011년 수시	B 2012년 수시	C 2013년 기본	D 2013년 기본	E 2013년 기본
법		○		○	○
조직 및 인프라	○		○	○	○
기능 및 제도		○	○	○	○
프로그램	○	○	○	○	○
인력	○		○	○	○
예산					○

A는 2011년 수시과제로 해당 주제에 관한 기존 정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는 대신, 연구 주제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반영된 통계 조사 결과로 대신하였다. B는

2012년에 수행된 수시과제로 해당 주제와 관련된 기존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분석하고 그것을 정책 방안에 반영하였다. C의 경우 2013년 기본과제로 국가 청소년정책 중 특정 정책 분야를 체계화하는 과제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별도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그 내용을 정책 방안에 반영하였다. D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청소년 정책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시사점을 고찰하였으며,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연구의 분석 결과와 정책 제언이 적확하게 매칭되지 않는 내용도 더러 있었다. E는 청소년 관련 기구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로 해당 관련 기구의 활성화를 위해 6가지 정책 방안을 모두 제시하였다. 정책 방안은 연구의 분석결과를 반영한 것이긴 한데, 대부분의 정책 방안들이 일종의 ‘종합패키지’로 제시되고 있어서 어떤 세부 정책방안이 더 필요하고 시급한지에 대해 가늠하기 어려웠다. 예컨대 관련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거나, 예산 지원 강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어떤 항목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더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경우가 종종 있었다.

기실 현장의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효과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개인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와 관련된 기존 청소년정책의 효과와 타당성 모두를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 방안이 기존 정책과 어떤 차별성과 특성이 있으며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거나 또는 제시된 정책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어떤 세부정책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제언 작성 요건 또는 보고서 평가 지표¹²⁾ 역시 연구보고서가 제안하는 정책 방안을 일종의 패키지화하고 표준화된 형태로 만드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정책 제언을 풍성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연구과제별로 특수성과 시의성이 반영된 정책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을 몇 가지 주제로

12) 연구보고서 정책제언 작성 요건(연구매뉴얼 p. 27)은 다음과 같다.

I. 정책방안의 우수성 요건: 가. 정책 방안 제시의 명료성(구체적인 정책 대안, 실효성 있는 제언 등), 나. 정책개발 및 지원 방안 명시/ II. 정책 방안 추진 방법의 구체성 요건: 가. 중·단기 추진 단계, 나. 추진 로드맵/ III. 정책방안의 실현 가능성 요건: 가. 법 개정 및 자원 확보 방안 제시, 나. 추진시스템 개선 등 제도화 방안 명시
또한 연구과제 중 정책연구의 경우, 연구보고서 평가지표 중 정책에 관한 배점이 아래와 같이 높다.

나누고 시급한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기존 정책의 효과와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었을 때, 연구자가 제안하는 정책의 실현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과제의 성과 및 향후 과제

지금까지 연구과제의 동향 분석과 내용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연구과제 수 또한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고, 청소년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그 중, 청소년 패널조사의 성과는 특기할 만하며 최근에는 다양한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집단별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한 점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청소년정책전담부처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수탁과제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수탁발주처의 외연을 확대하여 청소년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관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상술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계점도 발견된다. 이는 향후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향후 과제는 크게 연구과제(연구 내용과 방법 측면), 연구인력, 정책개발 측면에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연구과제 발굴의 체계화가 요구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했던 과제들에 대한 연구주제별 동향 분석과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행했던 연구과제가 다양한 주제와

평가지표		중점 평가요소
㉔ 정책 활용 가능성(55)	정책 방안의 우수성(15)	정책방안의 독창성/ 정책방안의 명료성/ 정책방안의 구체성
	정책 방안 추진방법의 구체성(15)	정책방안의 추진절차(단계별, 로드맵 등) 제시 정도/ 정책방안 추진 수단의 구체성/ 정책방안 추진체계의 적정성
	정책 방안의 실현가능성(25)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실현 정도(법령의 제·개정)/ 예산 및 자원 측면에서의 실현 정도/ 외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실현 정도

영역을 아우르고 있으나 특정 연구주제에 편중되거나 조사대상 집단도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다. 특히, 연구주제별 해당 과제들간의 관련성이나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도 양적연구방법에 비해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또한 내부과제와 외부과제가 다루는 연구주제들이 3~5가지 연구주제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외부과제의 경우 그것이 더 두드러졌다. 외부과제를 수행할 때 연구주제를 고려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를 발굴할 때 기존에 수행되었던 연구과제의 주제와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수행 과제를 도출하여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부적으로 기존에 수행되었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지도(map)를 작성하고 연구주제와 대상별로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부분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과제의 시의성을 고려하기 위해, 청소년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수립하여 과제 선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계, 정부, 현장, 청소년을 포함한 연구과제발굴 협의체를 구성해 볼 수 있다.

둘째, 연구인력의 전문성과 현장 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연구자별로 어떤 연구과제를 수행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비교적 연속성이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연구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직도 상의 문제로 보이는데, 연구원 내 존재하는 각 실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각 연구실의 실장과 실원들이 각 연구실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한다면, 연구 인력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인력 활용 측면에서 청소년 현장의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 분야가 다양하고 방대한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하며 현장 전문가 활용은 연구에서 다양한 관점의 적용과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정책 발굴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 정책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청소년정책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제안된 정책 방안이 실현가능하며 청소년 현장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기적으로 기존 정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각 연구분야별로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것의 효과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 작업이 선행될 때, 추가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느 수준에서 실행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성을 떨 수 있을 것이다.

제 IV 장

청소년정책연구 발전 방안

1. 연구과제의 발굴 측면
2. 연구인력의 활용 측면
3. 정책개발의 전문성 측면

제 IV 장

청소년정책연구 발전 방안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른 청소년정책 대응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의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기존에 수행했던 연구과제의 성과와 한계점을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술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1989~2013년 동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했던 연구과제의 동향 분석과 내용 분석을 통해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파악하였다. III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정책연구 발전 방안을 연구과제의 발굴, 연구인력의 활용, 정책개발의 전문성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3가지 부문별로 각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각 발전 방안의 일부는 전문가 자문조사에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들이다.

1. 연구과제의 발굴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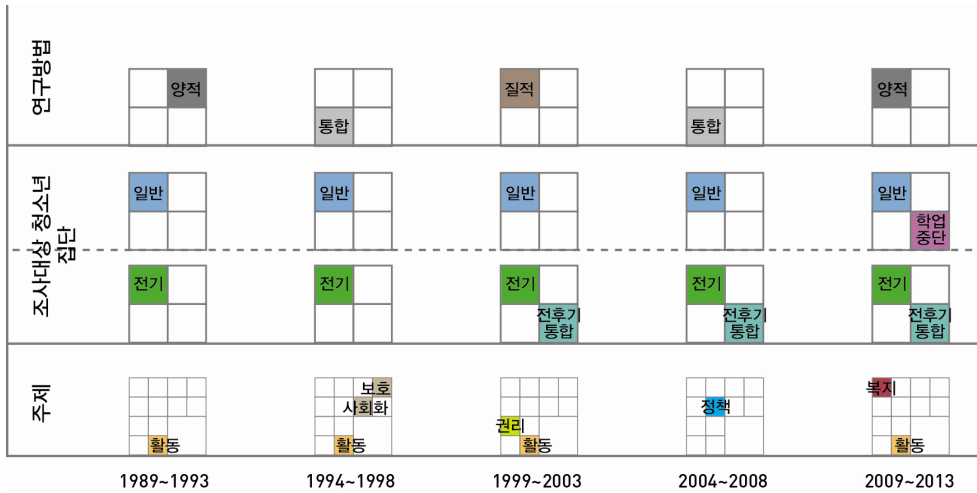
향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려고 할 때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사회적으로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를 적절하게 발굴하는 작업이다. 청소년 분야에서 시급히 수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 하에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과제 선정 과정을 체계화하고 현장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기존 연구과제에 대한 지도그리기(mapping)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5년간 수행된 연구과제는 그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연구영역도 다양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주제별, 조사대상별, 연구방법별 분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연구주제 중 일부는 중복되어 수행되기도 했고, 조사대상은 일반청소년에 편중되어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연구방법 측면에서도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많은 반면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수행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연구과제에서 제대로 포함되지 못했던 연구주제, 조사대상(일반청소년 외 다양한 청소년집단별 연구과제 발굴), 연구방법(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종단과제 등)을 정리하여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술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그것을 토대로 향후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과제에 대한 지도그리기(mapping)를 제안한다. 이것은 1989~2013년까지 각 시기별로 어떤 연구주제가 많이 수행되었고, 연구주제의 범위 또는 층위는 어떠한지, 조사대상 집단 중 다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연구방법의 활용 등을 촘촘히 기록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연구주제별로 유사한 연구를 군집으로 묶어서 해당 주제들이 수행된 시기와 각 연구과제가 제안하고 있는 정책방안들이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도가 완성된다면, 연구되지 않은 주제와 조사대상 집단, 연구방법 활용 경향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과제에 대한 지도는 향후 연구과제 발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즉 연구과제에 대한 전체 지도에서 비어 있거나 빠진 영역을 채우는 방식으로 향후 연구과제를 선정하거나, 지도에서 이미 많이 수행된 연구주제나 조사대상 집단이 무엇인지 밝혀짐으로써 향후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중복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과제를 분류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연구주제별로 몇 개의 영역을 구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속 과제 또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V-1】 기존 연구과제에 대한 지도그리기 예

2) 실별 전문성 강화 및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현재 연구과제 선정은 개별 연구자의 연구과제 제안,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의견 조사 결과, 그리고 정부의 요구가 반영되어 이루어진다. 그런데 개별 연구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제안한 연구과제들이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그것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는 기관 고유의 정체성과 연구과제의 시의성을 반드시 보장한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연구과제 제안을 개인에게 일임하기보다는 연구원 내 연구실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의 정체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집단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장과 실원들간의 정기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과거 수행했던 과제들을 검토하고, 수행되지 않았던 시급한 과제나 각 실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과제들을 발굴해 내는 작업이 요구된다. 실의 전문성이 강화된다면, 수탁과제를 개인 연구자 베이스로 수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별로 정체성에 부합하는 수탁과제를 실 베이스로 수주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는 기관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과제 발굴 의견 조사 역시 전문적인 협의회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 조사의 내용이 진지하고 깊은 고민의 결과물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연구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제안한 외부 전문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그들을 직접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효율적인 연구과제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별 연구자들에게 연구과제 제안을 받는 것 외에, 청소년 현장 전문가와 정책 부처의 담당자들과의 정기적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연구과제 발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제 발굴을 위한 정기적 협의회는 연구원 전체 단위 또는 실 단위별로 자체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이는 청소년정책 현장의 요구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과제 분류 기준 개발 및 적용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은 25년간 수행된 연구과제를 분류하는 기준이 부재했다는 점이었다. 이는 이후에도 연구과제에 대한 분류와 분석 작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매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주제별, 조사대상별, 연구방법별로 분류하는 기준을 개발하여 연구과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 또한 개별 연구과제의 시의성에 대한 분류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당과제가 당장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된 당면과제인지,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향후 5년 이내에 잠재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주제에 해당하는 잠재적 과제인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주제에 해당하는 중장기적 과제인지를 분류한다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매년 어떤 청소년 이슈에 대응해 왔는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표 IV-1>과 같이 연구과제 분류를 위한 체크 리스트를 활용해 볼 수 있다.

기존 연구과제에 대한 지도그리기가 과거 연구과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으로, 실별 전문성 강화 및 정기적인 정책협의회 개최가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을 의미한다면, 연구과제 분류 기준의 개발 및 적용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정을 통해 선정되어 수행된 연구과제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사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1

연구과제 분류를 위한 체크 리스트

구분	내용			
과제 분류	내부	기본 () 수시 () 협동 ()		
	외부	수탁 ()	수탁발주처	
과제 유형	정책연구 () 기초연구 ()			
전체 연구참여진 수		외부연구진 이름 및 소속	1. 학계	
			2. 청소년 현장 전문가	
			3. 타연구기관	
			4. 정부 부처	
			5. 기타	
연구책임자	이름	소속	내부 () 외부 ()	
연구 주제				
조사 대상 청소년 연령	초등 이하(~만 13세) () 중학생(14~16세) () 고등학생 (17~19세) () 대학생(20~23세) () 대학 졸업생 (24세 이상) 학업중단 청소년 () 기타 ()			
조사대상 청소년 성별	남 () 여 () 남녀 ()			
청소년 집단 분류	일반청소년 () 위기청소년(가출, 비행, 폭력 등) () 학업중단청소년 () 외국 청소년 () 한국 청소년+외국청소년 () 장애청소년 () 다문화가정청소년 () 저소득빈곤청소년 () 청소년한부모 () 북한이탈청소년 () 니트청소년 () 취약청소년 전체 () 기타 ()			
조사대상 성인 집단	청소년지도자 () 학부모 () 교사 () 관련 전문가(학계 및 공무원 등) () 일반 성인 () 기타 ()			
연구방법	양적 () 질적 () 양+질 통합 () 프로그램 개발 () 기관 평가 () 기타 ()			
사회이슈 대응	당면 과제 () 잠재적 과제 () 장기 과제 ()			

2. 연구인력의 활용 측면

청소년정책연구의 발전은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 앞서 연구과제 내용 분석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별로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연구 영역별로 외부 전문가 풀을 확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연구자별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성 제고

연구원의 개별 연구자들이 매년 수행하는 과제는 매우 다양한데, 일부 연구자는 비교적 유사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는 반면 일부 다른 연구자는 매년 수행하는 연구 주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정책 분야의 특성상 연구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원의 개별 연구자들이 각 영역별로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을 전문성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개별 연구자가 그 영역에 깊이 있게 또 지속적으로 연구했을 때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연구자가 매년 연계성이 없는 서로 다른 연구를 수행한다면 그 연구자가 전문성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개별 연구자가 한 영역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나머지 영역은 전혀 알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인력의 규모가 타 연구기관에 비해 두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연구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만을 수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술한 두 가지 상황을 절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일종의 대학에서의 전공과 부전공 개념을 적용하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전문 영역을 하나씩 확보하도록 하되 제2, 제3의 연구 관심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문 영역에 대한 연구를 가능한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제2, 제3의 관심 영역에 대한 연구 수행 능력은 수시과제나 협동과제, 수탁과제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연구 수행을 통해 제고된 개별 연구자의 연구 전문성이 실의 전문성과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연구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상술한 실의 전문성 강화와도 연계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실은 주력하는 연구주제나

분야를 설정한 상태에서, 그와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실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 해당 실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연구주제나 연구영역의 과제를 수행한 실원을 확보하고 있을 때 실의 전문성과 역량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실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력 충원 시에 관련 과제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연구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구자별 연구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자칫 개별 연구자가 본인의 전문 영역을 성역화하여 타 연구자들의 진입을 막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상술한 전공과 부전공 개념을 적용할 경우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만약 A연구자가 B주제를 전문 영역으로 선택하더라도 C연구자가 B주제를 제2, 제3의 관심 영역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구자별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성 제고는 개별 연구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써 개별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영역별 외부전문가 풀(pool) 확보

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연구과제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 중 다수는 학계 출신인 대학교수들이 주를 이룬다. 일부 대학교수는 매년 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매년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해당 연구자가 매년 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각 연구과제별로 연구주제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영역의 전문가를 연구과제의 공동연구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연구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원의 과제에 다수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를 관행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연구과제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영역 또는 연구주제별로 외부 전문가 풀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작업을 할 때, 청소년 학계나 인접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를 포함하여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는 신진 연구인력을 발굴하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 현장 전문가들에 대한 풀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는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연구과제에 접근하는 관점의 다양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개발의 전문성 측면

1)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 결과 아카이브 구축

연구과제에 대한 내용 분석 중 정책 제언에 대한 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구과제에서 제안하는 정책의 현장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주제별로 기존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 연구원에는 청소년 영역별로 기 수립된 정책에는 무엇이 있고, 그것이 현장에서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현장 전문가와 정책의 당사자들은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학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제안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이 작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원은 청소년정책의 수립에도 관여하고 있고, 청소년정책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에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토대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축적하여 아카이브로 구축한다면, 이는 무엇보다도 내부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정책개발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정책학의 토대 마련

주지하다시피 청소년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이들 연구가 학문적 체계화를 수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정책 분야도 마찬가지일 텐데,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연구과제와 다양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학의 토대가 되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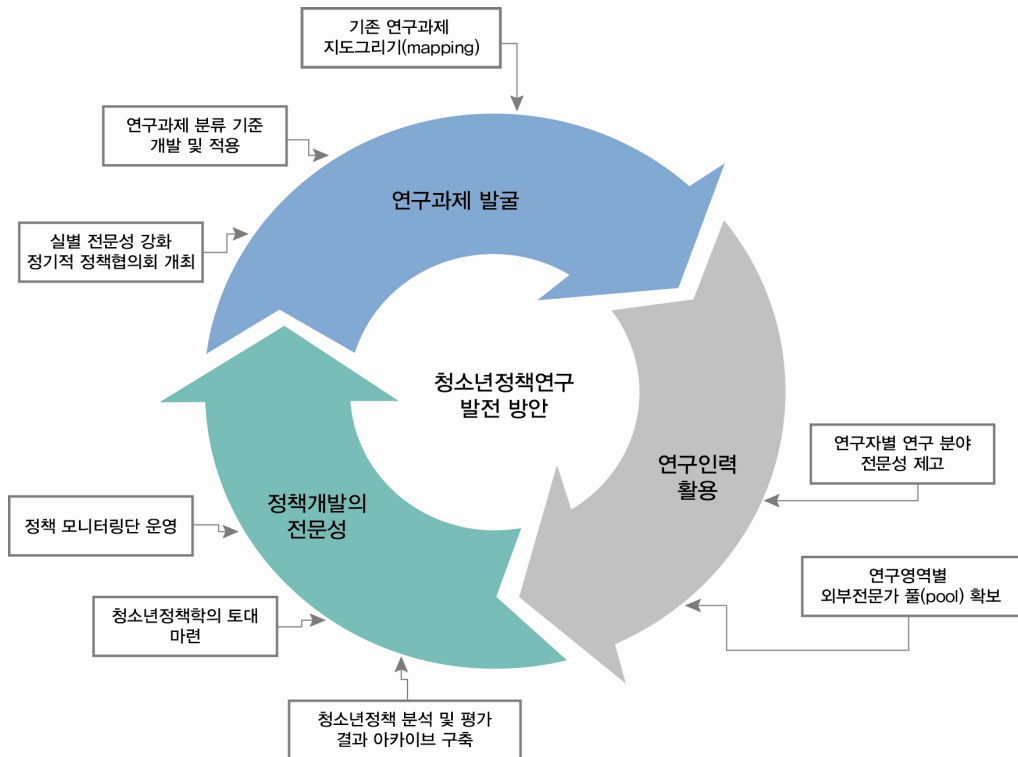
김민(2010)에 따르면, 청소년정책의 과정은 청소년정책 의제설정-청소년정책 결정-청소년정책 집행-청소년정책 평가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의제설정 과정에서는 어떤 과제가 우선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는지 한국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정책 결정과정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을 바라보는 정부와 한국 사회의 주된 관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집행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 결과 아카이브 구축'이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정책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정책학의 체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면,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하고 청소년학회와 공동으로 작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작업들은 청소년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체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안하는 정책 방안이 전문적 내용과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원에서 개발하는 정책들이 얼마나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현장의 전문가와 청소년들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연구원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우선 연구과제를 통해 제안한 정책들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채택된 경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후, 채택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평가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의 청소년관련 학과 교수 및 학생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 기관의 장과 직원, 교사, 공무원, 청소년,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책 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몇 가지 범주의 청소년정책을 분류하여 상시적인 평가 시스템을 운영해 볼 수 있다. 모니터링 결과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공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향후 과제로 제안했던 내용들을 종합 정리하면 [그림 IV-2]과 같다.



【그림 IV-2】 청소년정책연구 발전 방안

제 V 장



결 론

제 V 장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25년 동안 수행했던 연구과제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과제에 대한 동향 분석과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소년정책연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연구과제를 5년 단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2009~2013년 기간 동안 수행된 연구과제가 전체 과제 중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내부과제와 외부과제는 7:3의 비율로 수행되었다. 외부과제의 발주처는 청소년정책 전담부서가 53.5%로 가장 많았다. 전체 연구참여자는 2명과 3명에 의해 수행된 연구가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구과제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연구방법은 양적연구(39.4%)인 반면, 질적연구(7.4%)의 활용 비율은 매우 낮았다. 전체 연구과제 중 절반 이상은 청소년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청소년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한 과제 중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제가 약 66%를 차지했고, 청소년의 연령 집단 중 전기청소년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는 약 55%를 차지한 반면 후기청소년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는 3.7%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내부과제와 외부과제를 나누어 동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부과제는 전체 연구참여자가 2명과 3명에 의해 수행된 연구가 각각 25%로 유사한 반면, 외부과제는 3명이 참여한 연구과제가 약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내부과제에서는 주된 연구방법이 양적연구방법인 반면, 외부과제에서는 기관 평가나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된 기타연구방법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내부과제의 조사대상은 약 63%가 청소년인 반면, 외부과제의 주된 조사대상은 청소년과 성인집단을 통합한 경우로 약 40%를 차지하였다. 내부과제와 외부과제 모두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내부과제에서는 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약 56%를 차지한 반면, 외부과제에서는 전기청소년만을 조사한 연구와 전기+후기청소년을 통합한 연구가 각각 약 48%로 거의 유사하게 수행되었다.

연구주제별 동향 분석 결과, 보호 및 복지(24.8%),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생활(23.4%), 정책기

반 및 인프라(20.5%)의 순서로 연구과제가 많이 수행된 반면 권리, 참여 및 시민성(13.0%)에 관한 연구과제가 가장 적었다. 활동 및 역량 주제는 수탁과제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나머지 4개 주제는 모두 기본과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기반 및 인프라의 경우는 기본과제(44.2%)뿐만 아니라 수탁과제(37.5%)의 비율도 높았다. 연구주제별 주요 수탁과제 발주처는 청소년정책 전담부서였으나, 2순위 발주처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정책기반 및 인프라의 경우는 전체 연구참여자 수가 2~4명인 경우가 전체 과제의 약 68%를 차지하였으나, 나머지 4개 주제에서는 2~3명의 전체 연구참여자에 의해 연구가 수행된 경우가 다수였다. 연구주제별로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과제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정책기반 및 인프라의 경우는 기타연구방법을 적용한 과제 비율이 양적연구방법을 적용한 과제 비율과 유사하였다. 조사대상에 있어서도 나머지 4개 주제는 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수행된 과제가 가장 많은 반면, 정책기반 및 인프라에서는 청소년과 성인 집단을 각각 조사대상으로 수행된 과제가 약 42%로 유사하였다. 연구주제별로 일반청소년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삼은 과제가 가장 많았으나, 보호 및 복지 주제에서는 위기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약 25% 수행되었다. 모든 주제에서 전기청소년 집단만을 다루거나, 전기+후기청소년을 통합한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 과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한편 연구과제에 대한 내용 분석에서는 연구주제별 내용 분석, 연구자별 과제수와 연구주제 분석, 정책제언 분석이 이루어졌다. 우선 연구주제별 내용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와 생활에서는 가족 및 사회화, 생활 및 의식, 다문화 사회, 환경(매체, 환경 일반, 정보화 등)에 관한 연구과제의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가족과 관련된 연구, 학업(학교) 환경에 대한 연구, 청소년 친화적 환경에 대한 연구과제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권리, 참여 및 시민성 주제에서는 권리, 참여, 시민성 각 주제에 관한 연구과제의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 권리, 참여, 시민성에 관한 연구가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조사대상과 연구방법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 주제 관련 연구과제가 제안한 정책제언에 대한 평가 및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정치 및 사회제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활동 및 역량 주제에서는 해당 연구과제의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활동 및 역량에 관한 세부과제를 반영한 연구, 활동 및 역량 연구과제가 제안하는 정책 방안의 다양화, 청소년활동 조사의 필요성, 활동 및 역량에 관한 연구과제 발굴의 중요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보호 및 복지 주제에서는 해당 연구과제의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고, 보호 영역에서 문제와 비행에 대한 처방적 관점이

아닌 예방적 관점에 의한 연구와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기반 및 인프라 주제에서는 청소년 정책기반 및 인프라에 관한 연구과제를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청소년 분야 고유의 정책 프레임 개발 및 선도적 과제 발굴, 사회 보편적 요구 확인 및 도구 개발, 국제적 표준에 상응하는 과제 발굴, 현장 역량 제고를 위한 기여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내용 분석에서는 연구자별 과제수와 연구주제를 살펴보았다. 연구자별 평균 전체 과제 수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2013년에는 연구자별로 평균 4.6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연구자들이 수행했던 연구과제의 주제는 연구자에 따라 편차가 컸다. 즉, 일부 연구자는 비교적 유사한 주제의 연구과제를 수행해 온 반면 다른 일부 연구자들은 매년 서로 다른 주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세 번째 내용 분석에서는 연구과제가 제안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과제가 제안하는 정책 방안들이 일종의 패키지화된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향후 연구과제별로 특수성과 시의성이 반영된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상술한 동향 분석과 내용 분석 결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진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도출되었다. 향후 과제로는 연구과제 발굴의 체계화, 연구인력의 전문성과 현장 전문가의 참여 제고, 정책의 현장 적용가능성 제고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상술한 향후 과제를 토대로, 청소년정책연구 발전 방안을 연구과제의 발굴 측면, 연구인력의 활용 측면, 정책개발의 전문성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우선 연구과제의 발굴 측면에서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기존 연구과제에 대한 지도그리기(mapping) 작업이 요구되고 실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정기적 정책협의회 개최가 필요하며, 연구과제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자별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구영역별로 외부전문가 풀(pool)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개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청소년정책학의 토대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적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상시적인 정책 평가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합동(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 국가청소년위원회(2008. 1).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
- 김광웅, 이종원, 천정웅, 이용교, 길은배, 전명기, 정효진 (2009).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장근영 (2012).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민 (2010). 청소년정책의 이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편, 청소년학개론. 서울: 교육과 학사.
- 문화관광부 (1998. 7).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안).
- http://www.okwelfare.net/zboard/zboard.php?id=pds&page=1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reg_date&desc=asc&no=228에서 2014년 12월 10일 인출.
- 조철민(2013). YMCA, 홍사단, YWCA의 활동을 통해본 시민운동 행위양식의 형상과 변화의 궤적(1981-2013).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여성가족부 (2013. 3. 29).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
- http://www.mogef.go.kr/korea/view/intro/intro04_03a.jsp?func=view¤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0919에서 2014년 12월 10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14. 2. 11).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 http://www.mogef.go.kr/korea/view/intro/intro04_03a.jsp?func=view¤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3963에서 2012년 12월 10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1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4년도 시행계획.
- 윤철경, 김영지, 김기현, 오성배 (2008). 신정부 청소년정책 발전방향과 과제.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소년육성위원회(2003. 12).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안)(2003-2007) 요약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제2차 중장기 연구마스터플랜(미발간 내부자료).
- Crick, B.(2000). *Essays on citizenship*. London: Continuum.
- House of Commons (2007). *Governing th Future: Second Report of Session 2006-2007*.
Public Administration Select Committee.
- Park, S. Y. (2007). The provision of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NGOs : case studies
from England and South Korea. Ph.D thesis.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Abstract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and further issues of Youth Policy -Focusing on analyzing the NYPI' s Research Projects over a 25-year period-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 s research projects and their results over a 25-year period, and to propose future research projects based on the analysis. To this end, the following three aspects of the research projects were analyzed. First, a trend analysis of the research projects was conducted. For research projects completed between 1989 and 2013, major trends were identified by examining projects in 5-year periods. Second, a contents analysis of the research projects was conducted. Research projects were categorized into several topics to investigate their contents. Then, the number of research projects and research topics were examined for individual researchers, and finally, the policy proposals from the research projects were analyzed. Third, ways to improve youth policy research were reviewed. Based on the results from previous analyses, future research projects in youth policy research are proposed. To analyze the research projects, quantitative analysis, contents analysis, and expert survey have been conducted.

The major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A trend analysis of all research projects reveals that the ratio of internal and external research projects is 7:3, and that the majority of projects use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while very few us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lso, research on overall adolescents accounts for about 66%, and the number of research on post-adolescents is very few compared to research on early adolescents. A trend analysis of internal and external research projects indicates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roject types. A trend analysis of research projects by their topics also indicate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projects, clients, research methodologies, and subject of study. Next, contents analysis was performed after categorizing research projects into five topics, followed by proposal of future projects. Also, the number of research projects, research topics, and policy proposals for individual researchers were analyzed.

The average number of research projects per researcher gradually increased, reaching 4.6 on average in 2013. There are some variations in the research topics studied by individual researchers. Finally, outcomes and directions of future projects are derived from the trend and contents analyses.

Based on above findings, ways to improve youth policy research are proposed in three areas: development of research agenda, utilization of research workforce, and expertise of policy development. Each proposal is followed by 2-3 detailed policies.

Key Word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Youth Policy Research, Trend Analysis, Contents Analysis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4-R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안선영 · 황여정 · 이수정 · 이로사
- 14-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 임희진 · 송병국
- 14-R0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I / 이경상 · 박선영 · 조남익
-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 · 김정주 · 김정숙
- 14-R05 아동 · 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박영균 · 조흥식
- 14-R06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 김형주 · 권재기
- 14-R0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 김형주
- 14-R07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창호 · 신나민
-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이유진 · 이창훈 · 강지명
-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 · 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승경 · 송미경
- 14-R1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지연 · 정소연
- 14-R1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 배상률
-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 · 조혜영 · 이태주 · 이덕난
- 13-R1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 · 손병덕
- 14-R14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 김경준 · 김희진 · 이민희 · 김유나
- 14-R14-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 김경준 · 이호균 · 서여정 · 김광혁 · 김형욱 · 윤상석 · 박병식 · 이석구
- 14-R14-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2014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경준 · 김희진
- 14-R14-3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 천정웅
- 14-R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지역사회 진단 · 분석 / 김지경 · 하현주 · 김옥태
- 14-R15-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김영한 · 임영식 · 김민
- 14-R16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신현옥 · 박주희
- 14-R16-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박주희
- 14-R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오해섭 · 맹영임
- 14-R17-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 오해섭 · 맹영임 · 문호영
- 14-R18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Ⅴ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황진구 · 모상현 · 정은주 · 강현철 · 한영근 · 허효주 · 문은옥 · 이영화
- 14-R18-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Ⅰ -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 분석 / 정은주
- 14-R18-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Ⅱ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 모상현
- 14-R18-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Ⅲ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 황진구 · 허효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Ⅰ 데이터 분석 보고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 김지영·전영실·박성훈 (자체번호 14-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측정 도구개발 / 김태준 (자체번호 14-R20-2)

수 시 과 제

- 14-R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 이유진·배규한
- 14-R2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모상현·이진숙
- 14-R23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방안 / 김희진
- 14-R2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백혜정·임희진
- 14-R25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배상률
- 14-R26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황진구
- 14-R27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숙

수 탁 과 제

- 14-R28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성은모
- 14-R29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박창남
- 14-R30 학교 밖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진로 실태조사 / 김지경·이상준
- 14-R31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14-R32-1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2-2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3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 조혜영·양계민
- 14-R33-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활용편 :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매뉴얼 / 조혜영·양계민
- 14-R3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한·이유진

- 14-R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지경 · 김지연 · 김정주
- 14-R36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윤철경 · 김혁진 · 김범구 · 정다정
- 14-R36-1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윤철경 · 하시연
- 14-R37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총괄보고서 / 성은모
- 14-R37-1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통일체험 활동 운영매뉴얼 / 성은모
- 14-R38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평가 체계개발 및 프로그램 분석 / 양계민
- 14-R39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2014 / 황진구 · 이종원 · 김희진
- 14-R40 2014년도 공동생활가정평가 사후관리 / 김지연 · 이경상
- 14-R41-1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예방매뉴얼(1-1) / 윤철경 · 황여정 · 김승경 · 맹영임
- 14-R41-2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1-2) / 윤철경 · 황여정 · 김승경 · 맹영임
- 14-R41-3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1-3) / 윤철경 · 황여정 · 김승경 · 맹영임
- 14-R41-4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진단도구 개발(1-4) / 정제영 · 강태훈 · 류성창 · 변수용
- 14-R42 2014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김경준
- 14-R43 대안교육포럼 / 윤철경 · 오해섭 · 백혜정 · 김희진
- 14-R4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임희진 · 백혜정 · 김희진 · 황여정
- 14-R45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모델 확대 방안 / 황진구
- 14-R4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지연 · 김동일 · 김태완 · 윤철경
- 14-R47 고용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성은모
- 14-R48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이창호 · 윤철경 · 최금해 · 김옥태
- 14-R49 2014년 포래조정사업 / 서정아 · 김영한 · 이유진
- 14-R50 20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돌봄 연계 모형 개발 연구 / 양계민
- 14-R51 청소년우대정책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기초연구 / 이창호 · 조혜영 · 김용훈
- 14-R52 신고 · 인증제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 임지연 · 김민
- 14-R53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성은모
- 14-R54 약물사이버중독 안전내용체계안 개발연구 / 이창호 · 왕석순
- 14-R5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검정교과목정비 및 표준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 김경준 · 오해섭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4-S01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Ⅰ (1/6~10)
- 14-S0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Ⅱ (1/13~17)
- 14-S0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1/21)
- 14-S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집중 연수 (2/4~7)
- 14-S05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2/20)
- 14-S06 제1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4)
-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11)

- 14-S08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 일본의 최근동향 (3/13)
- 14-S09 STATA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기초 (3/21)
- 14-S10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 (3/26)
- 14-S11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워크숍 (4/3~4)
- 14-S1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학교장 특별연수 (4/14~16)
- 14-S13 학업중단예방 시·도 담당자 워크숍 (4/11~12)
- 14-S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4/23)
- 14-S15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진단지표 (4/29)
- 14-S16 복잡표본조사에서 가치치 산출 (5/8)
- 14-S17 다문화시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교육 (5/12)
- 14-S18 시군구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7)
- 14-S19 지역사회 지표를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정책의 실제 활용 (5/26)
- 14-S20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플릿트러닝의 적용 가능성 (5/26)
- 14-S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5/30)
- 14-S22 위기청소년을 위한 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5/30)
- 14-S23 청소년 통일 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ction Learning의 적용가능성 (5/29)
- 14-S2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6/13)
- 14-S25 Mplus를 활용한 자료분석 (7/4)
- 14-S26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세미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7/11)
- 14-S27 질적연구방법론 : CQR (7/21)
- 14-S28 가정폭력사건의 회복적사법 도입가능성 (7/29)
- 14-S29 2014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 하계합숙연수 (7/22~25)
- 14-S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사례(중등) 발표 워크숍 (8/7, 8/10)
- 14-S31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8/29)
- 14-S32 표본조사의 올바른 모수 추정법 (8/14)
- 14-S33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8/21)
- 14-S34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담당자 2차 워크숍 (8/28~29)
- 14-S35 대안교실 담당 교원 심화연수 (8/18~22)
- 14-S36 질적연구방법론 : 근거이론 (8/29)
- 14-S37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안 도출 (9/19)
- 14-S38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9/19)
- 14-S39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역량 강화 방안 (9/30)
- 14-S40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 정책과 실천 (9/25~26)
- 14-S41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공동세미나 (9/25)
- 14-S42 학교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 (11/3)
- 14-S43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30)
- 14-S4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11/12)
- 14-S45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1/7)
- 14-S4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11/17)
- 14-S47 국회다정다감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1/07)
- 14-S48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워크숍 (11/29)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7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7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7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75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1호 :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2호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3호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4호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5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6호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3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4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5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6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7호 :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8호 :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 과학에 관한 의식조사 : 주요 연구결과

연구보고(수시과제)14-R27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인 쇄 2014년 12월 24일

발 행 2014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전화 02)2263-388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